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체육학 석사 학위논문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언론보도의 프레임유형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2013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스포츠경영전공

정 선 미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언론보도의 프레임유형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기 한

이 논문을 체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 년 **4**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스포츠경영전공

정 선 미

정선미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 년 **6** 월

위 원 장 _____ 강 준 호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이 용 호 _____ (인)

위 원 _____ 김 기 한 _____ (인)

국 문 초 록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언론보도의 프레임유형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 선 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운동선수를 다룬 스포츠 기사(보도프레이밍)에 따라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와 감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일반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는 미디어와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이해의 연장선에서 스포츠신문기사를 읽는 사람들의 인지, 감정과 그에 따른 태도를 이해하고, 이들의 연관성에 대한 기초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인운동선수를 다룬 신문기사는 기능초점정도, 장애초점정도로 기사의 프레임을 나누었으며 인지적 과정으로써 거리감을 감정적 과정으로써 연민의 변인을 도출하였고 태도를 측정하는 변인으로 편견을 도출하여 차별적 행동과 고정관념을 그 하위요인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비장애인으로 무작위로 선출한 서울지역 3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장애인운동선수의 기능에 초점 맞춘 신문기사와 장애에 초점 맞춘 신문기사를 삽입하여 제작한 2가지 다른 유형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거쳐 수집된 자료 257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9부를 제외한 23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과 구조방정식(SEM) 모형검증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기능에 초점 맞춘 신문기사라고 인지한 일반인들은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하여 낮은 거리감과 연민의 감정을 보이는 한편, 장애에 초점 맞췄다고 인지할수록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하여 높은 거리감과 연민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높은 거리감과 연민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장애인운동선수가 아닌 일반 장애인에 대한 높은 편견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은 지지 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스포츠기사에서 다루는 장애인운동선수의 기사 프레이밍 유형은 일반인들의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거리감과 연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큰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미디어프레이밍, 장애인운동선수, 사회범주화이론, 거리감, 연민, 편견
학 번 : 2010-21568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1) 장애인운동선수의 개념과 특징 ····· 1
   2) 장애인운동선수의 보도관행 ····· 1
2. 연구의 필요성 ····· 2
3. 연구의 목적 ····· 4

Ⅱ. 이론적 배경 ····· 5

1. 언론 보도 프레임과 장애인 스포츠 경기 보도 ····· 5
   1) 언론 보도에서 프레이밍의 개념 ····· 5
   2) 프레이밍의 영향 ····· 7
   3) 장애인스포츠선수의 보도 프레임 ····· 10
2.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편견 ····· 15
   1)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인식 : 편견의 관점에서 ····· 15
   2) 편견 발생 과정 ····· 18
3. 언론보도프레임이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22
   1) 사회범주화(Social Categorization) 과정을 통한 인지적 처리과정 ····· 22
   2) 연민(Empathy)을 통한 감정적 처리과정 ····· 25
4. 연구 모형 및 가설 ····· 28

Ⅲ. 연구방법 ····· 30
1. 연구 대상 ····· 30
2. 자극선정 및 제작 ····· 31
3. 주요 변수 측정 ····· 32
4. 자료 분석 ····· 34
1) 기술통계분석 ····· 34
2) 신뢰도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 34
3)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 34

Ⅳ. 연구결과 ····· 36

1. 예비분석 ····· 36
1) 기술통계분석 ····· 36
2) 신뢰도분석 ····· 37
3) 확인적 요인분석 ····· 37
2. 가설 검증 ····· 39
1)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증 ····· 39
2) 연구 가설의 검증 ····· 40

Ⅴ. 논의 ····· 42

1. 장애인선수의 보도행태와 편견 발생과정 ····· 42
2. 편견발생과정과 편견정도 ····· 43
1) 거리감과 편견 ····· 44
2) 연민과 편견 ····· 44

Ⅵ.결론 및 제언 ····· 45

1. 결론 ····· 45
2. 제언 ····· 47

참고문헌 ····· 50

Abstract ····· 91

표 목차

표 1. 장애인에 대한 보도 방식 및 특징 분류 ····· 12
표 2. 편견의 개념 정리 ····· 17
표 3. 연구 가설 및 내용 ····· 29
표 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30
표 5. 설문지의 구성 ····· 33
표 6.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 36
표 7. 측정항목의 신뢰도 계수 ····· 37
표 8.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 39
표 9.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 40
표 10.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 ····· 41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 29
그림 2. 측정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38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 40

부록 목차

부록 1. 장애초점 사전조사 신문기사Ⅰ ····· 60
부록 2. 장애초점 사전조사 신문기사Ⅱ ····· 61
부록 3. 장애초점 사전조사 신문기사Ⅲ ····· 62
부록 4. 기능초점 사전조사 신문기사Ⅰ ····· 63
부록 5. 기능초점 사전조사 신문기사Ⅱ ····· 64
부록 6. 기능초점 사전조사 신문기사Ⅲ ····· 65
부록 7. 사전조사 설문 문항 ····· 66
부록 8. 장애초점 본설문지 ····· 67
부록 9. 기능초점 본설문지 ····· 79

Ⅰ. 서 론

1. 연구배경

1) 장애인선수의 개념과 특징

패럴림픽(Paralympic)은 장애인을 위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스포츠대회로 장애인 올림픽 이라고 불린다(IPC: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척수장애 전상자에 대한 재활 수단의 하나로 운동요법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제5회 올림픽 이후 장애 유형이 확대되면서부터 다른 장애인들도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고 현재는 척수장애인 뿐만 아니라 신체, 감각 장애가 있는 선수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IPC: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장애인선수들에게 사회참여의 근본적인 목적중 하나는 사회통합으로,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교육, 취업, 여가, 스포츠 참여가 해당된다(이성규, 2003). 스포츠 참여를 통하여 동료, 지역사회와 상호관계를 맺고 이를 통하여 심리적 일체감을 얻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이성규, 2003). 뿐만 아니라 스포츠는 장애인들의 결단력, 인내력, 자신감을 불어넣어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에도 기여한다(Sherrill, Rainbolt & Ervin, 1984). 따라서 스포츠는 장애인들에게 단순한 신체건강의 증진 뿐 만 아니라 그 효과에 있어서 비장애인에게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홍양자, 1996).

2) 장애인선수 보도 관행

장애인선수의 증가와 관심으로 미디어에서 장애인선수를 다루는 기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디어에서 장애인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당하고 있는데, 각종 미디어에서는 장애를 잘못된 용어로

표현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미담에 편중된 기사를 편성하는 등 일상적이고 피상적으로 장애인을 기사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며 기술과 인권의 발전 그리고 장애인선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 비춰진 장애인선수는 여전히 고정관념에 침체되어있다(함미애, 1998; Day, 2000). Nelson (1996)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점차 미디어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그들이 사회에 주요 구성원이 아니라는 인상을 남기게 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다루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Oliver (1996)는 장애인이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기제에 의해 "장애화 된 존재(Disabled people)"라고 정의 내리며 장애를 "개인 비극 이론(Personal tragedy theory)"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관계를 지나치게 경시하여 개별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적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 원인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장애인을 위한 국제 경기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인 패럴림픽의 등장과 88서울패럴림픽 개최를 계기로 하여 장애인 스포츠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우리나라에 대두되었고(박나영, 2011),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주최로 한 각종 대회가 마련됨에 따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스포츠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한민규, 2008).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면서 장애인스포츠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태도도 변화 하고 있으며,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선수들이 상업광고에 등장하기도 하고 TV, 신문, 잡지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장애인선수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증가하고 있다(권정아, 2006).

미디어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미디어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는 수용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는 세상에 대하여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Lippman, 1992), 미디어의 프레임을 통하여 특정 가치를 짓게 하는데 영향을 주며(Price & Tewksbury, 1997), 특히 신념과 행동 그 중에서도 편견적 신념과 행동을 유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Elizabeth, 1989).

한편,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의 편견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실제 그들은 장애인 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의 부재, 그 중에서도 비장애인과의 차별이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고 느끼고 있으며(이성규, 2003),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경제적, 직업적 기회를 박탈당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며 여러 가지 차별대우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송관재, 이재창, 홍영호, 2001).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미디어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미디어 효과의 차원에서 프로그램 포맷에 중점을 두고 비교한 연구들(Sadlick & Penta, 1975)과 장애와 관련된 특수 교육의 차원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일반학생들 교육의 보조매체의 관점에서 효과를 조사한 연구(Gottlieb, 1980)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인식)과 미디어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한 학술논문은 거의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박애신, 2006) 미디어프레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그 영향력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보도를 오직 이슈를 만들어 상업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려는 시각으로 인해 미디어프레임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선수를 보도하는 미디어가 일반인들의 편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 선수를 '장애관련 보도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로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하며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장애인선수에게 있어 스포츠란 단순한 '신체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들의 의식 전환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장애인운동선수의 보도행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보도행태 즉, 미디어 프레임의 형태가 인지와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일반인의 인식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미디어프레임의 유형은 기능초점정도, 장애초점정도 2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인지 변인으로 Turner (1985)의 사회범주화이론과 감정의 변인으로 Fiske (2002)의 장애인에 대한 연민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식의 변인으로는 Allport (1954)의 편견을 적용하였다. 이는 미디어프레임의 유형 그리고 유형에 따른 인지적, 심리적 과정과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단계별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프레임에 따라 인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둘째, 인지적요인과 편견은 상관관계에 있는가?

셋째, 감정적요인과 편견은 상관관계에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언론 보도 프레임과 장애인 스포츠 경기 보도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는 매일 각종 미디어에서 내보내는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고 있다. 미디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도 프레임의 개념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통하여 장애인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장애인운동선수의 보도 프레임 종류를 나눠 알아보고자 한다.

1) 언론 보도에서 프레이밍의 개념

프레이밍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개념으로 Nelson , Zoe & Oxley (1997)는 프레이밍이란 수용자들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소스가 구조화되고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정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Druckman (2001)은 프레이밍이란 논리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묘사하여 나타냄으로써 수용자들에게 다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라고 정의 내렸고, Goffmam (1974)은 수용자들이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반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석의 개요, 가설과 고정관념의 집합이라고 프래이밍을 개념화 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프레이밍을 뉴스보도가 대중의 의견을 결정짓게 하는 과정이나 방법 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Nelson et al., 1997).

이에 미디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서 여러 가지 형식의 프레이밍을 사용하고 있다(Reese, Gandy & Grant, 2001). 첫째. 일화 중심적 프레임과 주제 중심적 프레임(Iyengar & Simon, 1993), 둘째. 동등 프레임과 강조 프레임(Chong & Druckman, 2007), 셋째. 이슈구체적 프레임과 포괄적 프레임(Devreese, 2001)이 그 대표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Iyengar et al., (1993)는 '일화 중심적(Episodic) 프레임'과 '주제 중심적(Thematic)' 프레임으로 나누어 각 프레임에 따른 수용자 반응을 알아보았다. 그에 따르면 일화 중심적 뉴스 프레임은 이벤트를 중심으로 대중적인 이슈를 보도하는 것을 말하며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대중적 이슈를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결과나 상황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일화 중심적 프레임은 사회문제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수용자의 즉각적, 감정적 반응과 개인 귀인을 유도하는 반면,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사회 문제의 원인과 배경의 이해를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고 사회귀인을 이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Iyengar & Simon, 1993).

또 다른 연구에서 Chong et al., (2007)은 프레이밍은 크게 '동등(equivalency) 프레임'과 '강조(emphasis) 프레임'으로 나눌 수 있다는 연구를 하였다. 동등프레임은 이슈나 문제를 "다르지만 논리적으로 동등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득'과 '손실'의 프레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Tversky & Kahneman, 1981). 아시아인의 질병과 관련하여 사용한 프레임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하여 600명 중 200명이 살아날 것이라고 표현할 것인지 혹은 600명 중 400명은 죽게 될 것이라고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프레임효과를 실험하는 연구를 하여 두 가지 표현법이 주는 차이와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를 하였는데 이 실험이 바로 동등프레임방법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Tversky & Kahneman, 1981). 이와는 대조적으로 강조프레임은 수용자들이 평가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잠재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들을 프레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프레임은 정확히 같은 정보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것에 주력한다(Druckman, 2004). 예를 들어, 정치 연설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쪽 그룹에는 대중 안전과 관련된 기사를 노출시키고 다른 그룹에는 언론의 자유 관점의 기사를 노출 시킨 결과 첫 번째 그룹에서는 집회 개최에 대해 낮은 관용을 보인 반면, 두 번째 그룹은 집회 개최에 대해 높은 관용을 보였다는 실

증 연구 결과가 있다(Nelson et al., 1997).

한편, De Vreese (2001)는 Semetko & Valkenburg, (2000)의 포괄적프레임(generic frames)을 바탕으로 이슈구체적 프레임(issue specific frames)과 함께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포괄적 프레임은 미디어에서는 뉴스에서 기사를 다루는 유형에 따라 3가지 프레임법으로 분류 하였는데, 갈등(conflict), 인간적(human interest), 경제결과(economic consequences) 프레임 방법이 그것이다(De Vreese, 2001). 갈등 프레임은 개인이나 집단을 표현할 때 갈등으로 묘사하며 인간적 프레임은 인간적 이야기나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경제 결과 프레임은 개인, 집단, 지역이나 국가의 지출, 이익과 같은 비용 관련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Semetko et al., 2000). 한편 이슈구체적 프레임은 미디어에서는 이슈의 구체적인 테마나 이야기의 구체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De Vreese, 2001).

이상에서, 언론 보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이밍이란 언론에서 보내는 정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의 부분이며 미디어에서는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프레이밍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용자들이 받는 정보는 미디어에서 선별적으로 프레이밍 하여 제공한 정보를 의미하며 양방향이 아닌 일방향적 정보의 공급, 수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프레이밍 된 정보는 수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2) 프레이밍의 영향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프레이밍이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이라면 프레이밍을 통하여 수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미디어 프레이밍은 수용자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프레이밍이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Rokeach (1973)는 미디어와 정보처리모델(Information - Processing

Model)로 그 영향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보처리모델이란 사람들은 스키마(Schemas)라고 불리는 그들의 생각을 조율하는 인지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스키마 시스템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과 연결하기 위하여 신념, 태도, 가치, 그리고 선호도를 기억에 저장한다는 것이다(Rokeach, 1973). 따라서 사람들이 프레임에 노출 되면 그들은 곧 해당 이슈와 관련된 사항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새로운 프레임의 등장은 곧 그들이 기존에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조합하도록 이끌고 따라서 프레이밍 된 이슈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프레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Rokeach, 1973).

특히, 정보처리이론은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새로운 정보의 교환에 있어서 나타나는 태도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미디어어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들은 스키마 시스템에 의하여 강조된 새로운 뉴스를 저장하게 되고 이렇게 저장된 내용은 새로운 신념을 생성시키거나 오래된 신념이 변화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다(Kinder & Sears, 1985). 따라서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에 대해 무시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미디어에서 그것에 대한 강조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Kinder & Sears, 1985). Gilens (1996)역시 특정 관점이 강조 되고 프레이밍 되는 정도는 수용자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결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미디어프레이밍의 이슈사안 강조가 수용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정보처리모델의 등장 이후 Wyer & Srull (1984)은 사람들의 스키마를 통해 새로운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조화 하였다. 첫 번째 단계, 관련된 정보의 일부분을 그들의 장기기억장치(Long-term memory)에 있는 관련 상자(Referent bins)에 저장하고 두 번째 단계, 사람들은 관련 상자를 더 빈번하게 사용되거나 가장 최근에 사용된 정보가 가장 윗부분에 위치하게 되도록 조율하여 정보의 접근이 가장 용이하도록 한 뒤 마지막 단계로 사람들은 그들이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기억장치에서 부터 작은 양의 정보만을 가

져오려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그들은 정보 회수 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정보부터 평가에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Wyer & Srull 1984).

정보처리모델을 통하여 미디어프레이밍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았고 이후 여러 학자들은 프레이밍이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Iyengar et al., (1993)는 프레이밍은 실제 어떤 이슈와 상관없이 수용자들의 태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에서 아프리칸계 미국인은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추어 지거나 하위그룹으로 묘사되고 뉴스에서는 특히 아프리칸계 미국인들 집단의 자산에 대하여 특히 강조를 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아프리칸계 미국인들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부족한 집단임을 인식시킨다(Gilens, 1996). 게다가 미디어에 등장하는 개인들의 인종은 집단에 대한 대중 인지를 형성시킨다(Iyengar & Kinder, 1987). 즉, 미디어에서 흑인 관련 내용을 프레이밍하여 전달하게 되면 사람들은 흑인 전체 집단의 것으로 인지하여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Nelson et al., 2007).

Kinder et al., (1996)는 프레이밍 방법 중 특히, 이슈프레임은 잠재적으로 이슈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레임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슈 프레임을 “lead a double life″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이슈프레임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묘사법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슈에 대해 알게 하는 인지적 구조“ 로서의 프레임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디어가 상이한 뉴스 프레임을 사용하여 이슈에서 ‘A′의 측면이 아닌 ’B′의 측면을 부각시킨다면 수용자는 해석의 초점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슈 프레임을 통해 전달된 정보는 해당 이슈와 관련된 다른 이슈나 행위자들을 수용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며(Price, Tewsbury & Powers, 1997), 무엇보다 프레임이 수용자들의 의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Sniderman & Theriault, 2004). 즉, 특정 부분을 강조한 프레임이 수용자의 의견을 한쪽에서 또 다른 한 쪽으로 이동되도록 함

으로써 특정 이슈에 대한 강조를 넘어서 특정 프레임을 통하여 이슈를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게 하는지 제공하는 역할의 의미(Nelson & Kinder, 1996)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수용자들은 인지적 구조를 통하여 미디어에서 프레이밍 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교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반인들의 의견, 행동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새로운 신념, 태도가 생성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장애인선수의 보도프레임

장애인은 언제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정적인 존재인가? 뉴스, 다큐멘터리,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애인은 언제나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여 정책적, 재정적으로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상인이 아닌' 집단으로 분류되어 지곤 한다. 그래서 우린 장애인에게 늘 불쌍함을 느끼며 측은해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한 정상인'이어야 한다고 미디어에서는 말하는 듯하다.

장애인에 대한 보도방식은 기사 수용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방식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정 대상을 묘사하는 방식이나 관점에 따라 그 보도 방식의 영향력과 효과는 변별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일부 내용만이 강조된 경우 오히려 일반인에게 장애나 장애아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형성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하였다(강수균, 조홍중, 2003).

가. 장애인보도의 선행연구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보도하는 프레임에는 첫째. '장애극복 프레임' vs '장애에 대한 숭고한 사랑 프레임'(한희정, 2007), 둘째. '인간적 한계 프레임' vs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Higgins, 1992), 셋째. '전통적 프레임 모델' vs '진보적 프레임 모델'(clogston, 1994)로 분류 된다.

한희정 (2007)은 언론보도에서 묘사하는 장애인의 재현 모습은 크게 두 가

지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장애극복'으로서의 묘사법, 둘째. '장애에 대한 숭고한 사랑'이다. '장애극복'의 프레임은 장애란 어떻게든 극복해야 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인식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나 비장애인과 비슷한 사회적 활동을 한다면 그 장애인은 비로소 장애영웅으로 거듭나 미디어 및 언론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한희정, 2007). 마라톤을 완주한 장애인, 암벽을 타거나 에베레스트에 오른 장애인의 이야기를 마라톤이나 암벽 등반의 기능이 아닌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미디어 보도방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한희정, 2007). 또 다른 묘사법인 '장애에 대한 숭고한 사랑' 프레임은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 장애 아동의 입양, 장애인 친구를 돌보는 비장애인 친구의 이야기 등을 보도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를 통해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임을 인식 시키고자한다(한희정, 2007).

Higgins (1992)는 장애인의 개념 모델로 장애란 인간의 존재에 한계를 제공하며 비정상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일반인보다 열악한 상태라는 '인간적 한계 프레임'과 장애는 단지 인간의 다양한 조건들 중 하나로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묘사하는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이에 이종은(1999)은 인간적 한계 프레임과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을 적용, 시사주간지에 장애인 관련기사를 프레이밍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프레이밍 형태에 따라 일반인들의 감정이입, 편견의 감소 및 문제해결 동기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을 수용한 집단의 경우 인간적 한계 프레임을 수용한 집단 보다 장애인에 대한 감정관여의 수준 및 장애인 중심 관점채택의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중심의 관점을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감정관여의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며 장애인 문제 해결에 더욱 참여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Clogston (1994)은 연구에서 장애인선수들을 미디어에서 표현하는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인 모델(traditional Model)로써 장애를 가진 선수들을 본래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도하거나 실제 보도와

는 상관없이 그들의 장애에만 집중하고 그들을 표준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비추거나 의료,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 번째 모델인 진보적 모델(progressive Model)은 다양한 문화와 장애와 관련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좀 더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고 장애인들과의 상호관계에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의 부족을 지적한다(Clogston, 1994). 하지만 두 가지 모델을 정의하는데 있어 더 큰 문제는 진보적 모델의 보도방법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모델로서의 미디어 표현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Clogston, 1994).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보도하는 방식 및 특징은 다음 [표1] 에 정리되어 있다.

Clogston (199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을 관련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이 장애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오게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장애 인권운동가를 포함한 사람들은 신문 등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이슈사안이나 역할묘사 그리고 언어 사용에 있어서 고정관념 적이고

연구자	장애인 보도방식 및 특징
Higgins (1992)	● 인간적 한계 프레임 - 장애란 비정상적이며 보통이 아닌 것으로 인간에게 한계를 부여하는 장애물 ●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 장애는 인간의 다양한 조건 중 하나
Clogston (1994)	● 전통적 방식 - 장애인은 표준이 아닌 사람, 실제 내용과 상관없이 장애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 ● 진보적 방식 -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에 초점
한희정 (2007)	● 장애극복관점 - 비정상적인 장애를 극복한 장애영웅의 기사화. ● 숭고한사랑관점 - 장애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 장애인에 대한 사랑 강조.

[표1] 장애인에 대한 보도방식 및 특징 분류

가부장적이며 장애인들을 적절하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으며(Cooke & Reisner, 1991; Johnson & Elkins, 1989), 뉴스미디어의 실증적 연구에서 역시 장애인기사와 관련하여 예산지출, 주택공급 치료와

같은 전통적인 이슈들은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주제이며 미디어에서는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Yoshida, Wasilewski & Friedman, 1990). Keller, Hallahan, Mcshane, Crowley & Blandford (1990)은 미디어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 기사로 다룰 때 심각한 뉴스로 다루기보다 특집기사와 같은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정도이며 이런 기사에서 역시 장애가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현한다고 주장하였다. Haller (1997)는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서 시민권리 시위의 일부분으로 청각장애인들을 묘사할 때는 장애인을 진보적 방법 (정치 혹은 장애관련 문화 관점에 초점) 으로 보도 했지만 일반적인 뉴스와 기사의 일부분으로 그들을 다룰 때는 전통적인 방법(장애에 대한 사회고정관념에 초점)으로 그들을 묘사하였다.

종합해 보면, 장애인을 다루는 기사는 기사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디어에서는 기사내용과는 상관없이 장애인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만한 단순 이슈거리로 보도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부정적, 의존적인 성향의 인물로 묘사하고 보도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스포츠보도에서의 장애인 보도프레임

현재 미디어에서의 장애인선수 보도는 그들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사회에 충분한 참여를 담고 있을까? 오히려 미디어로 인해 장애인선수들이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아닐까?

일반적으로 스포츠보도에서 장애인선수들이 등장 할 때는 첫째, Super crip(장애를 가지고도 무슨 일에든 성공하려는 사람)의 이야기나 둘째, 논란이 될 만한 장애인선수들 관련 보도를 할 때의 경우이다(Leland, 1998). 예를 들어, 장애인선수관련 보도 중 가장 큰 이야기로 골프선수 Casey Martin의 예가 있는데 희귀한 순환계 장애로 오른쪽 다리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는 PGA 토너먼트에서 불허하던 카트 사용 문제로 법정공방을 펼

치기도 하였고 이때 미디어에서는 소송관련 기사를 쏟아낸 적이 있다(Leland, 1998).

스포츠와 장애가 수용가능한 문화 범위 안에 들어오긴 하였지만 여전히 미디어는 장애를 편견을 배제한 기사로 쓰는데 대하여 저항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디어에서는 미디어와 장애라는 큰 범위의 내용 안에서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하여 무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과 기록은 미디어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는 내용은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Keller et al., 1990; Depauw & Gavron, 1995). Shutton (1998)은 장애인선수는 미디어에서 등장하지 않거나 선수의 편견적인 보도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올림픽의 보도는 일반 올림픽에 비해 보도의 양이 매우 드물며 일반선수들에 비하여 장애인선수들의 보도를 찾기란 좀처럼 힘이 든다고 하였으며 Shapiro (1993)는 장애인스포츠나 선수들은 '스포츠가 아닌 하나의 이슈로 방송될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미디어에서 장애인선수들의 보도가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 쪽으로 치우친 스포츠 보도가 일반인들의 태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이유는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다. Pfuhl & Henry (1993)는 미디어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식은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하였다.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있어서 소재가 선택되는 방식, 제시되는 양식, 초점이 맞추어지거나 강조되는 부분, 커뮤니케이션 문법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하며 특히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집단'으로서는 그들과 관련된 사건이나 이슈, 사례 등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비추어지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미디어의 내용전달적인 관점은 수용자들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데 미디어에서 보여준 프로그램은 실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감정을 유발시키고 (Stephan & Finlay, 1999) 미디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을 통하여 사회적 규범을 감정적으로 인식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사회적 규범은 편견과 갈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Sherif, 1936).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미디어에서 장애인스포츠 및 선수관련 기사는 일

반기사보다 양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장애'라는 이슈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거나 장애를 '극복해야할 대상'으로써 묘사함으로써 단순한 이슈를 위한 보도로 사용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미디어 프레임을 적용하며 이때, 미디어가 장애인선수를 묘사할 때 어느 관점을 강조하여 보도하는가는 장애인선수 보도의 프레임 유형을 나누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A. 장애중심적 프레임 B. 기능중심적 프레임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연구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2.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편견

사람들은 모두 사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거나(수혜 대상으로써 우대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일반인들은 그들을 사회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열등하다는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편견의 개념을 통하여 알아보고 그러한 편견을 발생시키는 과정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인식 : 편견의 관점에서

편견은 심리학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온 주제로서 그 만큼 많은 학자들에 의해 편견의 용어는 정의되어 왔다(Dovidio, Glick & Rudman, 2005). Allport (1954)는 편견이란 특정 사물, 현상,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하여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특정 집단에 소속된 대상에 대해 갖게 되는 부정적 평가, 비호의적 태도를 의미하며 부적절한 인지를 그 원인중 하나로 뽑았다. Ashmore & Del

Boca (1976)역시 편견을 사회적으로 정의된 집단과 그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에 대해 갖는 부정적 태도라 하였고, 사실적 근거 없이 다른 집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 선입견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Kleg (1993)는 편견이란 지나친 일반화로 인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해 적정하지 않은 감정을 일으켜 감정적 행동을 할 준비자세가 된 상태라고 보았으며 Jackson (1992)은 편견을 특정 집단의 소속에 기초하여 차별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Fishbein (1996)은 편견을 특정 집단에 소속된 개인에 대해 비이성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태도로 인식하였다. 편견의 개념은 다음 [표2]에 정리된 바와 같다.

즉,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란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해 가지는 견해로 실제 내용이나 사실과 상관없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실제,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경제적, 직업적 기회를 박탈당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며 여러 가지 차별대우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송관재, 이재창, 홍영호, 2001). 특히, 장애를 가진 스포츠선수들은 소수 그룹으로 취급받고 있어 일반 스포츠 선수들과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고 더욱이 장애인스포츠선수들은 적은 기회, 보상, 대중의 인기와 같은 일반 스포츠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DePauw et al., 1995). 이러한 편견은 구성 요소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기도 하는데 Freeman, Sears & Carlsmith (1981)는 집단에 대한 부정적 느낌의 인지적 요소가 고정관념이고, 감정 내지 평가적 요소는 편견이며, 행동적 요소는 차별이라고 하였다. 한편, 홍대식 (1995)은 편견을 비롯한 관련 용어 -태도, 고정관념, 차별, 낙인, 오점- 의 용어는 모두 부정적 태도에 속하는데 이런 태도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태도의 인지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이 고정관념이며 이는 특정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에 대한 신념의 세트이고 감정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이 편견인데, 이것은 좋거나 싫은 느낌과 관련 된다

연구자	편견의 개념
Allport (1954)	특정 사물, 현상,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하여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특정 집단에 소속된 대상에 대해 갖게 되는 부정적 평가, 비호의적 태도
Ashmore & Del Boca (1976)	사회적으로 정의된 집단과 그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에 대해 갖는 부정적 태도
Jackson (1992)	특정 집단의 소속에 기초하여 차별적 평가를 하는 것
Kleg (1993)	지나친 일반화로 인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해 적정하지 않은 감정을 일으켜 감정적 행동을 할 준비자세가 된 상태
Fishbein (1996)	특정 집단에 소속된 개인에 대해 비이성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태도
김혜숙 (1999)	특정 집단과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표2] 편견의 개념 정리

(홍대식, 1995). 마지막으로 정서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이 차별이며 이것은 행동적 수용이나 거부와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홍대식, 1995). 이어 김혜숙(1999)은 편견이란 특정 집단과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지칭하며 편견은 태도의 삼 요소인 신념적 측면, 감정적 측면 그리고 행동적 측면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 중 신념의 측면이 고정관념으로서,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을 지칭하며 감정적 측면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적대적 감정을 지칭하고 행동적 측면은 차별로서 투표행동이나 고용 혹은 일상생활에서의 친교 행동에서 집단 명칭에 근거해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세 측면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김혜숙, 1999). Brubakers & Powers (1976)는 고정관념은 사회편견의 인지적 차원을 구성하고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추상적 지식이 부각되는데 반해 Jones (2002)는 차별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부정적 결과로 어떤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해 행해지는 부당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전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편견이란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이용하여 이미 한쪽으로 방향으로 치우쳐진 의견이나 판단 그리고 행동을 뜻하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뜻보다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여 사용되고 있다. 또 편견의 구성요인으로 고정관념, 차별 등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으나 그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개념을 분류하는데 있어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태도)을 알아보고자 함으로 편견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고정관념, 차별적 행동의 두 가지 변인을 적용하여 연구하도록 할 것이다.

2) 편견 발생과정

편견의 인지적 근원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관련 학계의 주 관심 연구 분야로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김혜숙, 1999). 인지적 근원에 관한 연구는 범주화의 다른 수준(기본범주, 상위범주 등)과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Brewer, Dull & Lui, 1981; Weber, 1983)를 비롯하여 사회정체이론과 사회범주화이론에 입각한 내집단, 외집단 범주화 연구들이 있다(Turner, 1985; 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

편견의 발생과정으로 사회정체성 이론을 다룬 학자들은 사회범주화의 동기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을 강조하였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긍정적인 정체감을 위해서는 사회그룹 안에서 구성원으로써 의 권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런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 그룹과 외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Brown & Zagefka, 2005).

이어 범주화를 통한 편견의 발생을 연구한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인지 과정을 거쳐 내집단과 외집단이 형성되고 이런 범주화는 내집 단 편애와 외집단 비하를 가져온다는 것이다(Turner, 1985). 따라서 내집단에 대하여 더 호의적이며 내집단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태도와 평가를 더욱 높이 하고(Gaertner & Dovidio, 2000), 자기그룹과 보다 협조적이며 외집단구성원들보다 자기그룹 구성원들과 더 공유하기를 원하며 (Schroeder, Penner, Dovidio,

& Piliavin, 1995), 외집단에게 내집단의 행동에 대하여 말할 때 보다 관용적이고 너그럽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기그룹의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며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하여서는 보다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는 주장을 한다(Hewstone, 1990).

한편, Weber (1983)는 인지 과정에 의하여 고정관념적 편견이 변화되는 방법으로 3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적립모델(Bookeeping Model), 둘째. 변환모델(Conversion Model), 셋째. 예외모델(Subtyping Model)이다(Weber, 1983). 첫째, 적립모델은 고정관념적 정보가 쌓여 기존의 고정관념이 변화된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작은 변화를 이끌어 내지만 상당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적 정보의 축적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이다(Rothbart, 1981). 둘째, 변환모델은 첫 번째 모델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Rothbart, 1981). 이 모델에 의하면 한, 두 번(명)의 강한 정보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고정관념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Subtyping Model은 경험을 통한 계급구조로써 설명할 수 있다(Ashmore, 1981). 이 모델은 처음 그룹에 대한 정보는 전체 그룹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고정관념생성에 바탕이 되며 이후 이와는 다른 정보가 유입되었을 때 그룹 안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예외의 존재를 발전시킨다. 예를 들어, 독일인은 효율적이라는 고정관념이 그렇지 않은 독일인을 만남으로써 독일인 전체를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보단 해당 독일인은 예외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한편, 90년대 이후 편견을 예언함에 있어 감정이 예언의 역할을 해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Dovidio et al., 1996; Stangor, Sullivan & Ford, 1991). 이에 다양한 전통을 가진 연구자들은 내집단(자신이 속한 그룹)과 외집단(자신이 속하지 않은 그룹)에 대해 느끼는 특정 감정과의 관계를 밝히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Cottrell et al., 2005; Fiske et al., 2002; Mackie, Devos & Smith 2000). Mackie et al., (2000)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화, 역겨움, 두려움)이 발생하면 내집단과 관련된 외집단의 강점 혹은 약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Weiner, Perry & Magnusson (1988)은

특정 외집단에 대한 각기 다른 감정으로 책임감과 비난과 같은 비판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는 연구를 하기도 하였다. 이어 Cottrell et al., (2005)는 평가와 위협의 차원이라는 다른 감정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였으며 외집단이 오염, 해로움과 같은 구체적인 위협을 나타내려는 생각과의 관계를 밝혀냈으며 이러한 위협은 역겨움이나 화의 감정과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인지와 감정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학자들은 인지와 감정의 영향력을 비교하려는 시도도 하였는데 Stangor et al., (1991)의 연구에서는 미국 백인들이 9개의 서로 다른 집단(백인, 흑인, 아시아인, 멕시코인, 유태인, 러시아인, 아랍인, 미국인,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인지요인과 감정적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한 바 있다. 연구결과, 각 집단에 대한 태도는 인지요인보다 감정의 호의성 정도에 의하여 더 잘 예측된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Jussim, Nelson, Manis & Soffin (1995)의 연구에서는 정신분열증환자, 동성애자 등에 대한 편견은 그 사람이 속한 집단 특성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그 집단에 대한 감정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최근 외집단에 대한 감정이 편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편견에 인과관계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둘의 상관관계에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감정과 편견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면 첫째. 특정 집단의 인지로 인한 그들의 편견은 독특한 감정적 반응을 낳는다(Cottrell et al., 2005; Fiske et al., 2002). 둘째. 외집단으로부터 생김 감정은 전혀 관계가 없는 자극에 인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감정은 부수적 감정이라 부른다). 즉, 외집단에 대한 반응은 외집단에 대한 범주화가 일어나고 난 후에는 어떤 사람, 사건 그리고 물건에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수적 감정은 편견을 구체화 시킬 수 있으며 감정은 외집단에 의하여 활성화된다. 나아가 표면적으로 관계가 없는 자극에 의하여 발생한 각기 다른 감정들도 그룹의 감정적 반응에 사용되어 질 수 있다(Molly, Kristen & Thomas, 2007).

셋째. 개인들의 감정에 대한 성향은 외집단에 대하여 보다 편견적이며 그들의 고정관념적 성향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감정적인 기질은 빈번한 에피소드, 강력한 경험 그리고 특정 감정의 강한 표현의 경향성을 가진다 (Kagan & Snidman, 1991). 예를 들면, 화를 쉽게 내는 사람들은 화와 관련된 평가에 대하여 보다 편견적이다(해로움, 불평등). Molly et al., (2007)은 아프리칸미국계 사람들과 게이에 대한 편견에 대해 알아본 결과 화, 역겨움의 감정이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Dijker (2009)는 자연스럽게 생긴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감정 반응을 위하여 독일 참가자들과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의 가설은 개인이 경험했던 개인 간 상호관계에 의하여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응답자들의 반응은 외집단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 모두 나타내며 내가 속한 인 그룹과 외집단의 범주화를 통하여 생긴 고정관념적 편견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 상황이나 집단에 대한 감정이 편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 독특한 감정적 반응을 가져올 수 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인지와 감정의 2가지 프로세스를 통하여 수용자들의 한 쪽으로 치우진 인식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지와 감정의 영향력의 크기와 그 과정은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감정과 편견의 인과 관계 역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장애인 보도 방식에 따라 첫째. 인지가 편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둘째. 감정이 편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셋째. 특정 프레임을 통해 반응한 인지정도와 특정감정이 편견에 미칠 것이라는 가설 아래 연구를 진행, 인지와 편견, 감정과 편견의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인지적 방법으로서 Turner (1985)의 사회범주화 이론이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편견을 알아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 적용하여 연구할 것이다. 사회범주화 이론은 다음 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3. 언론 보도프레임이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살펴 본 내용에서 장애인선수에 대한 편견은 두 가지 차원 즉, 인지적, 감정적 처리 과정에 의한 발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장애인운동선수 보도의 두 가지 프레이밍이 일반인들의 인지와 감정에 어떤 처리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 연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범주화이론이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 적용하기로 하겠다.

1) 사회범주화(Social Categorization) 과정을 통한 인지적 처리과정

보도프레임이 일반인들의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Turner (1985)의 사회범주화 이론(social categoriza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Turner (1985)의 연구를 기반으로 유럽의 연구자들은 사회정체이론과 이의 뒤를 이은 사회범주화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집단 간 관계의 맥락에서 작용하는 내외집단 범주화와 그 영향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Brewer & Brown, 1998).

사회범주화 이론은 사회정체성 이론보다 인지적인 과정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으로 범주화과정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Oakes, Haslam & Turner, 1994). 이 이론의 주된 내용은 인지적 편향은 편견을 형성시키는데 이런 인지적 편향은 범주화로써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을 단순화시키고 특히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범주화함으로써 내집단 편애와 외집단 비하가 일어나 이것이 내집단과 외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특정 행동 및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Turner, 1985). 이 이론은 사람들이 두 집단 간 차이를 집단내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지각한 구성원들은 집단 범주에 의거하여 지각한다고 본다(Turner & Oakes, 1989).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범주화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비교대상에 따라 또 사회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주의 특성의 내용이나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의미를 적용시켜 범주화 시킨다는 것이다(Oakes, Alexander & Turner, 1994;

Turner & Oakes, 1989).

집단, 사회 안에서 범주경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 사회범주화이론은 자기가 속한 그룹의 인지 시스템을 자극을 통하여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계를 재정립하여 재범주화를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만약 각 다른 그룹의 구성원이 자신들을 그룹의 구성원이라기보다 상위그룹(eg. 국가, 학교, 등)의 구성원 개인으로 인식한다면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태도가 좋아진다고 하였다(Gaertner et al., 2000). 또 Urban & Miller (1998)역시 자기와 다른 그룹에 속한 구성원이 다른 차원에서는 자기와 같은 그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그룹의 경계를 변화시키게 되며 내집단의 범주 디자인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집단과 외집단의 독특한 특성이 부과되는 것을 줄이고 유사성을 늘리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룹의 범주화를 다시 실행하게 된다는 것이다(Gartner et al., 2000). 실제 Nier, Gaertner, Dovidio, Banker, & Ward (2001)의 연구에서는 델라웨어대학과 웨스트체스트대학의 축구경기 시작 전에 실험을 하였는데 흑인과 백인 인터뷰진행자는 델라웨어와 웨스트체스터 대학의 모자를 쓰고 있었고 각 대학의 백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선호하는 음식조사에 인터뷰해 줄 것을 응하겠느냐고 물었다. 그 결과 백인들은 다른 대학의 백인들의 질문보다 같은 대학의 흑인들에 질문에 더 많이 응했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사회범주화이론의 등장과 함께 이를 통한 사람들의 인지가 외집단에 대한 태도 및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학자들의 연구도 함께 일어났다. Allport (1954)는 기본적인 인지와 동기적 절차는 편견의 발달과 유지에 기여하며 가장 기본적인 절차 중 하나는 사회범주화라고 하였다. 또한 인간은 범주화를 생각하며 범주화는 일반적인 판결의 기본이 되므로 우리는 이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며, 그가 편견의 기저로 꼽고 있는 인지적 처리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사회범주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범주화를 생각하는 이유로 범주화는 사람들에게 그룹을 기초로 하여 그룹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의 중요성을 만들고 이러한 독특함이 인

지, 신념 그리고 반응의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Stone & Crisp (2007)의 연구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상위, 하위집단 범주화에 따른 정체성의 정도에 따라 공통의 정체성이 강조된 맥락에서 다른 하위집단에 대한 편향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증명하였는데 집단 간 편향이 하위집단 정체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지만 상위집단 정체성과는 부적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Hewstone & Brown (1986)의 집단 간 상호차별화모형(mutual intergroup differentiation model)은 집단구성원이 가진 하위집단 범주의 정체성이 위협받지 않는 한에서 다른 하위 집단과의 접촉은 집단 간 편향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즉, 하위집단 고유의 특수성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 집단 간 편향 감소가 가능함을 말한다. 또 다른 연구 중 (Hewstone, 1990; Hewstone & Brown, 1986)은 하위집단 정체성의 특수성에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상위수준으로 범주화되는데 이는 집단 구성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위집단 경계를 분명히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범주화이론에서는 자신을 어느 집단으로 범주화 시키는가는 범주화 기준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일단 범주화 시키고 난 후에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집단 간 편견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유사하다고 생각한 집단에게 자신을 내집단으로 범주화 시키고 유사한 것이 적다고 생각 할수록 외집단으로 범주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 간 유사성은 사회적 거리감으로 나타낼 수 있다(Miller, Downs & Prentice, 1998). 사회적 거리감이란 특정 대상이나 사건이 자신에게 얼마나 친숙한지에 관한 주관적인 느낌으로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사회적 친밀감의 정도가 높으며 대상을 타인 보다 자신으로, 집단 외(out-group)에서 집단 내(in-group)로 표상하게 된다고 했으며(박인희, 2011), Perloff (1993)는 사회적 거리감을 심리적 거리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런 심리적 거리는 미디어와 관련하여 비평의 관점에서 자신과 자신을 비교하는 상대 집단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어 그는 사회적 거리감은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 같다”에서 “나와 전혀 같지 않다”의 연속선상에서 개념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Perloff, 1993). 또한 사회적 거리감은 사회적 역할을 결정짓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전혀 낯선 사람으로 구분 짓거나 우리 혹은 그들의 단어를 통하여 구분 지을 수 있다(Stephan, 1999). 즉, 사회적 거리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 및 집단과 얼만큼 유사하다고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만큼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어떤 대상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해 추상적, 일차적인 고정관념, 특성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행위 지향적이고 구체적인 표상과 관련되어 평가하게 된다는 연구가 나타났다(Idson & Mischel, 2001). 또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이종은 (1999)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인간의 다양한 모습으로 일반인들에게 비추었을 때가 장애를 일반인 보다 부족한 상태라고 비추었을 때보다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주장하며 사회적 거리감을 통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알아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프레임에 따라 일반인들이 인지한 장애인선수와의 사회적 거리감 정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그 정도에 따라 고정관념과 차별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민(Empathy)을 통한 감정적 처리과정

심리학 분야에서 인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한편, 감정 -연민- 과 편견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 역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Mendelberg, 2002; Stephan et al., 1999) 최근 들어 몇 연구들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집단에 대한 감정과 인지가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있다. (Dovidio et al., 1996; Stangor, 1991).

감정은 종종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과 같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분류

되어져 왔으나 보다 구체적인 감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Richins, 1997; Ruth, Brunel & Otnes 2002). 편견의 근원으로 인지와 함께 불안, 연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유형의 감정을 근원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시작으로(Dovidio et al., 1996) 이후 많은 다른 연구자들은 몇 가지 구체적인 감정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놀라움(Derbaix & Vanhamme, 2003), 후회(Tsiros & Mittal, 2000), 화(Bougie, Peters & Zeelenberg, 2003) 그리고 동정이나 연민(Edson & Stern, 2003)이 있다.

이 중, Dickert & Solvic (2009)은 연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하였는데 대상에 대한 관심, 특정 개인이나 그룹이 어렵거나 궁핍하다는 믿음 그리고 주어진 상황의 특징이 그것이다. 첫 번째. 특정 사람이나 그룹에게 관심을 주어야 하며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두 번째. 개인이나 그룹의 어려움과 궁핍한 상태는 연민의 감정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며 마지막으로 어려움의 다양한 상태(경제적 어려움, 아픔 등)는 관심에서부터 연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는데 이 때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가는 개인과 상황에 차이에 의해 많이 달라질 수 있다(Dickert & Slovic, 2009). 이어 Loewenstein & Small (2007)은 자격을 갖추거나, 상호의존적이거나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연민을 경험하게 하는 동기가 되며 도움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고 인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대한 신념은 연민의 행동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연민은 또한 취약한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린아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연민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도록 하고(Dijiker, 2010). 개인적인 감정, 이전의 경험, 사회연관성, 공간적 가까움 또한 연민을 경험하는데 영향을 준다 (Lowenstein & Small, 2007). 한편, 사회비교이론을 기초로 상위, 하위 그룹 간 감정을 연구한 Smith (2000)역시 하위그룹으로 동화하려는 감정은 연민과 동정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이 때 동정과 연민을 받은 그룹은 대게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고 하며

동정과 연민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연민을 느끼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Finlay & Stephan (2000)의 연구에서는 흑인 학생들의 차별 경험 에세이를 읽게 한 실험에서 에세이를 쓴 흑인 학생들이 처한 처우에 대하여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생각하라고 강조한 그룹이 에세이 내용만 강조한 그룹보다 더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고 하였으며 Batson & Polycarpou (1997)은 실험 참가자들이 특정그룹의 인터뷰내용에서 인터뷰를 한 사람들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 그룹과 인터뷰 내용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그룹 중에서 감정에 초점을 맞춘 그룹이 인터뷰 당사자들의 그룹에 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실험에서 Batson & Chang (2002)은 특정 그룹 구성원들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결과 -약물 중독자들의 불운에 초점- 실험 참가자들의 연민의 감정은 더 두드러지는 것을 밝혔다. Vescio, Sechrist & Paolucci, (2003)역시 흑인을 대하는 태도는 참가자들의 흑인과의 인터뷰에서 흑인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에 대한 감정에 관심을 보일 때가 인터뷰 내용 자체에만 관심 가질 때 보다 흑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들 연구에서는 흑인 혹은 약물중독자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 및 그들의 지위와 위치를 생각하게 했을 때 더욱 연민의 감정이 발생하며 그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는지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 변화의 중재 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Fiske et al., (2002)은 지위와 경쟁정도의 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기능으로써 외집단에 대한 감정에 의해 편견이 발생하는 과정을 분류한 연구를 하여 사람들은 지위와 경쟁정도를 조합하여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지위가 낮고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그룹에 대하여 가장적 고정관념(paternalistic stereotype), 둘째. 지위는 높지만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그룹에 대하여 존경적 고정관념(admiration stereotype). 셋째. 지위가 낮고 경쟁관계에 있는 그룹에 대하여 경멸적 고정관념(contemptuous stereotype), 넷째. 지위도 높고 경쟁관계에 있는 그룹에 대한 선망적 고정관념(envious stereotype)이다. 이 중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는 따뜻

함을 느끼고 지위가 낮은 그룹에 대해서는 낮은 권한을 느끼게 되며 각 그룹에서 느끼는 독특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Fiske, 2002).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위가 낮으며 경쟁관계에 있지 않을 경우에 속하게 되고 이 그룹에 속한 구성원에게서 나타나는 감정은 동정과 연민이며 이 감정은 따뜻하지만 비경쟁 관계에 있는 외집단에 대한 주관적으로 좋은 느낌이나 외집단에 대해 열등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는 지식이 있을 때 나타나며 본질적으로 혼합된 감정이라고 하였다(Fiske,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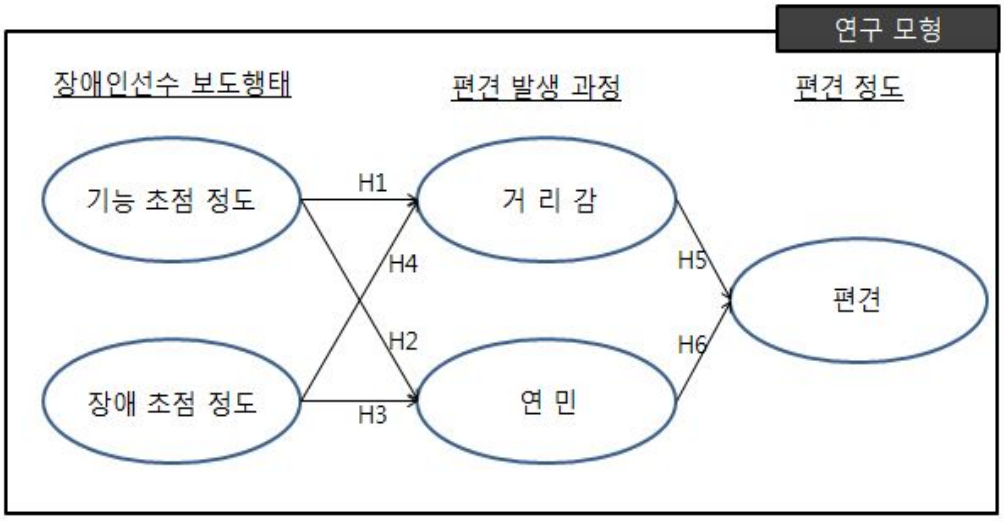
즉, 일반인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위치나 지위,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받는 감정적 요인들로 인하여 연민을 느끼게 되며 이는 장애인선수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감정은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프레임 유형에 따라 장애인선수로부터 느끼는 연민의 감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고정관념, 차별적 행동과는 어떤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4.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에서 장애인운동선수를 보도함에 있어서 보도행태에 따라 2가지 프레임방법을 제시하고 각 프레임에 따라 편견발생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편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단계별 메커니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장애인선수의 보도행태는 장애중심적 프레임과 기능중심적 프레임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해당 프레임이 강조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인지 정도를 측정하여 인지 정도에 따라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장애 초점 정도, 기능 초점 정도를 두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에 미치는 과정으로 인지



[그림1] 연구모형

적과정과 감정적과정의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인지적 과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거리감이라는 변인과 감정적 과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민을 변인으로 채택, 적용하였고 편견의 하위 요인으로 고정관념과 차별적 행동 두 가지를 선정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모형을 기초로 [표3]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내용
가설 1	기능 초점 정도와 거리감은 부(-)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 2	기능 초점 정도와 연민은 부(-)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 3	장애 초점 정도와 연민은 정(+)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 4	장애 초점 정도와 거리감은 정(+)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 5	거리감은 편견과 정(+)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 6	연민은 편견과 정(+)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다.

[표3] 연구 가설 및 내용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무작위로 선출한 서울 지역 3개 대학교에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다. 설문의 응답은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작성토록 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을 거쳐 수집된 자료 257부 중

특성	구분	빈도(명)	구성비(%)
성별	남	158	66
	여	80	34
연령	20대	130	55
	30대	53	22
	40대	21	9
	50대이상	34	14
가족장애	전혀없다	213	89
	1명	22	9
	2명	3	1
지인장애	전혀없다	129	54
	1명	67	28
	2명	26	11
	3명	5	2
	4명	11	5
접촉횟수	전혀하지않는다	96	40
	1년에1~2회	55	23
	6개월에 1~2회	27	11
	1달에 1~2회	27	11
	1주일에 1~2회	18	8
	거의 매일	15	6
총		238	100

[표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9부를 제외한 23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은 20,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전체 설문대상의 77%정도였다. 성별비율은 남성 66%, 여성 34%로 여성 응답자에 비해 남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의 통제를 위하여 가족과 지인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수와 접촉횟수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가족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전혀 없다가 가장 많은 전체 89%를 차지했고 지인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수를 측정한 결과 역시 전혀 없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접촉횟수 역시 전혀 없다와 1년에 1~2회가 전체 비율 중 63%를 차지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의 [표4]는 연구대상의 성별과 연령, 가족과 지인 중 장애인의 숫자와 그들과의 접촉횟수와 같은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2. 자극 선정 및 제작

본 실험에 앞서 설문지에 삽입되는 신문기사가 연구 목적에 맞춰 작성됐는지 기사의 초점 정도 확인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기능과 장애를 중점적으로 작성한 2가지 유형의 신문기사를 각 30명씩 총 60명의 학생에게 보여준 뒤,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2가지 유형의 신문기사는 모두 일반인들에게 실제 신문기사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실제 신문기사와 글자크기, 형태, 양식을 맞춰 제작 하였다. 신문기사는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실제 선수들의 기사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2가지 유형은 각 3개의 기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반복적인 기사의 노출을 통하여 설문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장애인운동선수를 다룬 기사를 읽은 일반인들이 해당 기사가 장애인운동선수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인지하는지 장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인지하는지를 스포츠 기사의 사진, 제목, 내용의 3가지 항목 5점 척도(1: 전혀 맞추고 있지 않다, 5: 강하게 맞추고 있다)로 측정하였다. 사전조사에 사용된 신문기사 및 문항은 <부록 1 >~<부록 7>과 같다.

사전조사 결과 기능에 초점을 맞춰 작성한 스포츠기사의 기능초점정도의 평균값은(M=4.1), 장애초점정도의 평균값은(M=1.4)로 기능에 초점을 맞춰 작성한 스포츠기사에서 사람들은 장애보다 기능을 더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실험자극으로 사용가능한 결과가 나왔다($t(30)=9.141$, $p<.01$). 또한 장애에 초점을 맞춰 작성한 스포츠기사의 장애초점정도의 평균값 역시(M=4.0), 기능초점정도의 평균값(M=1.4)로 장애에 초점을 맞춰 작성한 신문기사에서 사람들은 기능보다 장애를 더 중점적으로 인지하며 읽었다는 결과가 나와($t(30)=8.861$, $p<.01$) 본 실험에서 실험자극으로 두 가지 신문기사를 적용하는데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3. 주요 변수 측정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은 설문 응답자들의 프레이밍 초점 인지 정도, 장애인 선수에 대한 거리감, 연민 그리고 편견이다. 각 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장애인선수와의 거리감은 Westie (1959)의 사회적 거리감을 바탕으로 5점 척도의 5개 문항으로 하고 감정은 심리학연구에서 동정과 연민의 측정도구로 쓰인(Davis 1983; Mehrabian and Epstein, 1972)항목을 Edson & Stern (2003)이 재구성한 항목을 본 연구에 맞춰 5점 척도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편견은 Siller (1970)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 측정을 위하여 만든 DFS(Diability Factor Scales; 장애요인분석척도)를 사용하였다. DFS의 하위요인 중 차별적 행동 측정으로 1. 무조건적 거부(gneralized rejection)-장애인에 대한 지식이나 철학도 없이 장애인 분리 교육이나 지역 사회에서 분리를 바라며 장애인 사회통합을 반대하는 태도-, 2. 친교의 거부(rejection of intimacy)-

구성 내용	설문 문항 내용
기능 초점 정도 측정	1. 기사의 사진은 선수의 기량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2. 기사의 제목은 선수의 기량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3. 기사의 내용은 선수의 기량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장애 초점 정도 측정	1. 기사의 사진은 선수의 장애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2. 기사의 제목은 선수의 장애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3. 기사의 내용은 선수의 장애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사회적 거리감 측정	1. 기사 속 선수와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된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2. 기사 속 선수가 내가 아는 사람 중 한 명으로 느껴져 친숙한 느낌이다.
	3. 기사 속 선수가 내가 속한 동호회에 들어온다면 꺼리지 않을 것이다.
	4. 기사 속 선수와 내가 개인적인 친구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5. 기사 속 선수가 나의 가족의 배우자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연민의 감정 측정	1. 기사 속 선수가 이용당하는 것에 보호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2. 기사 속 선수들이 받는 불공평한 대우에 불쌍한 느낌이 들었다.
	3. 기사 속 선수들은 나보다 운이 없어 걱정하는 느낌이 들었다.
	4. 기사 속 선수들이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하여 미안한 느낌이 들었다.
차별적행동 / 고정관념측정	1. 장애인들은 그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편하다.
	2. 장애인들은 그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편하다.
	3. 장애인들은 그들끼리 일하는 것이 편하다.
	4. 내가 만약 장애인이라면 타인과 접촉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5. 장애인들은 정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6. 나의 아이가 장애아와 논다면 부담을 느낄 것이다.
	7. 장애인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이성으로서 사랑은 어렵다 생각한다.
	8. 만약 나의 가족이나 친구 중 장애인과 교제한다면 반대 할 것이다.
	9. 장애인과 결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 장애인들과 일하면 손해를 보는 느낌이다.
	11. 장애인들은 작업속도가 느려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한다.
	12. 장애인들은 의존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13. 장애인들은 업무 중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어 지켜보는 것이 좋다.
	14. 장애인들은 일을 원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15. 장애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한다.
문항 수	총 30 문항

[표5] 설문지의 구성

장애인과 가까운 관계를 거부하는 태도-의 5점 척도 9문항과 고정관념의 측정으로 1. 기능적 제한성 전가(imputed functional limitation)-장애인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 신체 어느 기관에 장애를 입으면 그것이 개인 능력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태도- 6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항목에 맞는 내용 및 문항수는 [표5] 와 같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의 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 통계값(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특징(평균, 표준편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신뢰도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설문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였다. Cronbach's α 검사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할 경우 검사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추정치인 문항 내적 일치도를 구하는 신뢰도 추정방법이다. 또, 각 측정 개념의 구조에 대한 차원성과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기능, 장애 초점정도와 거리감, 연민 그리고 편견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al Equation Model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연구모델에 포함되는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관계, 잠재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 및 방향 등을 연구자가 사전에 가설로 수립한 모델을 기초로 분석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이론을 토대로 사전에 수립한 모델이 있어야 하며, 연구자가 사전에 수립한 모델이 자료에 의해 지지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항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그림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 모형이 적합한지를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예비분석

1)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 인		문 항	평 균	표준편차
기능초점정도		기능초점1	2.97	1.27
		기능초점2	3.00	1.85
		기능초점3	2.98	1.25
장애초점정도		장애초점1	2.91	1.33
		장애초점2	2.80	1.65
		장애초점3	3.28	1.17
거리감		거리감1	3.32	.98
		거리감2	2.84	.98
		거리감3	3.53	1.13
		거리감4	3,54	1.12
		거리감5	2.72	1.10
연민		연민1	3.52	1.22
		연민2	3.42	1.19
		연민3	3.06	1.18
		연민4	2.93	1.09
편견	차별적행동	편견1	2.45	1.06
		편견2	2.87	1.13
		편견3	2.53	1.09
		편견4	3.12	.92
		편견5	3.45	1.09
		편견6	2.59	.98
		편견7	3.23	.99
		편견8	2.99	1.02
		편견9	3.13	2.16
		편견10	2.50	1.00
	고정관념	편견11	2.76	1.07
		편견12	3.37	1.03
		편견13	2.95	1.05
		편견14	3.10	1.05
		편견15	2.53	1.00

Note. 각 변인의 세부 항목은 [표5]참고.

[표6]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2)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Carmines & Zeller(1979)에 따르면 Cronbach's α 계수는 측정 항목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여러 종류의 신뢰도 계수들 가운데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뢰도를 평가하는 계수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Cronbach's α 계수는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Nunnally, 1978).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항목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7]과 같으며 각 변수의 신뢰도 계수, 즉 Cronbach's α 값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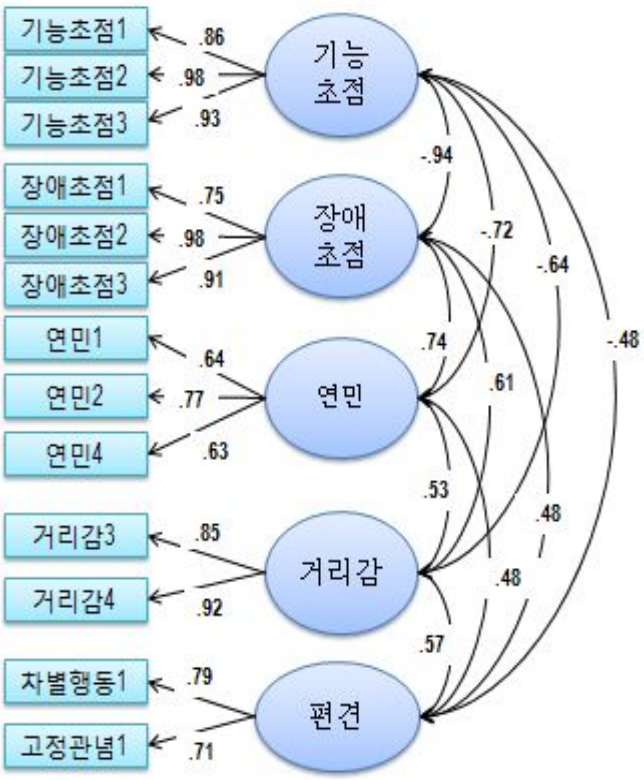
변 인	측정 항목 수	Cronbach's α
기능초점정도	3	.933
장애초점정도	3	.907
거리감	5	.780
연민	4	.838
편견	15	.796

[표7] 측정 항목의 신뢰도 계수

3)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연구도구에 사용된 각 측정 변인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도(validity)는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의도한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각 설문 문항들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능초점정도, 장애초점정도, 거리감, 연민 그리고 편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그림2]에 제시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의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 값과 만족할만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을 전공하는 지도교수 및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을 통하여 내용타당도 및 문항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친



Note. 각 변인의 세부 항목은 [표5]참고.
[그림2] 측정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뒤 부적합한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런 작업을 거친 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 변인들의 각 요인이 각 변수와 얼마나 잘 맞아 들어가는가를 의미하는 요인 적재치 값이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최소 .61에서 최대 .98까지 나타났다. 또한 연구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는 [표8]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Hu & Bentler(1999)가 추천하는 적합지수인 χ^2, Normed χ^2, CFI를 중심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적합도 지수들의 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문항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Chi-square(χ^2)	Normed χ^2(χ^2/df)	TLI	CFI	RMSEA
244.672(df=149)	1.642	0.968	0.975	0.0395

[표8]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2. 가설 검증

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서는 기능초점과 장애초점정도에 따라 거리감과 연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거리감과 연민이 사람들의 편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총 6가지의 경로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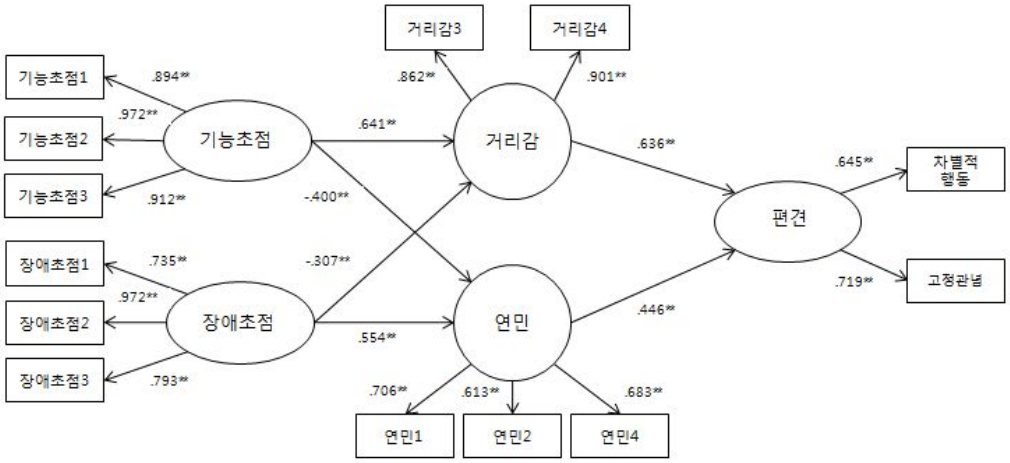
전반적인 ㆍ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에 앞서 음오차 변량(negative error variance)이 존재하지 않는지, 상관관계 값이 1에 접근하지는 않는지, 요인 적재치 값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것은 없는지, 표준오차(S.E: standard errors)에 너무 큰 값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연구모형의 적합도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카이제곱(χ^2) 값이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즉, 설정된 연구모형과 측정한 자료의 관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서 두 모형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야 한다. 또한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카이제곱(chi-square, χ^2)값뿐만 아니라, 각 적합도 지수들의 기준 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족할 만한 수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Hu et al., (1999)의 연구에서 추천하는 적합지수인 χ^2, Normed χ^2, CFI를 중심으로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다음의 [표9]는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적합도 지수들의 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모형은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Chi-square(χ^2)	Normed χ^2 (χ^2/df)	TLI	CFI	RMSEA
259.563	2.099	0.998	0.999	0.032

[표9]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2)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 [그림3]은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 p< .01

[그림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가설	경 로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H1	기능초점 → 거리감	-0.641	0.104	-4.297**
H2	기능초점 → 연민	-0.400	0.091	-4.539**
H3	장애초점 → 거리감	0.307	0.112	4.046**
H4	장애초점 → 연민	0.554	0.098	4.255**
H5	거리감 → 편견	0.636	0.042	8.642**
H6	연민 → 편견	0.446	0.037	6.905**

**: p< .01

[표10]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

위의 [표10]은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모든 가설은 경로계수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기능초점정도를 높게 인지한 사람이 낮은 거리감을 보이며 낮은 연민을 보이는 반면, 장애초점 정도를 높게 인지한 사람이 높은 거리감과 높은 연민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거리감과 연민은 모두 높은 편견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운동선수를 다룬 스포츠 기사(보도행태)에 따라 장애인선수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와 감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일반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는 미디어와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이해의 연장선에서 스포츠기사를 읽는 사람들의 인지, 감정과 그에 따른 행동을 이해하고, 이들의 연관성에 대한 기초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가설들과 이를 검증한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운동선수의 신문기사와 거리감, 연민 그리고 편견에 관계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장애인선수의 보도행태와 편견 발생 과정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선수를 다룬 언론의 보도초점이 장애인운동선수의 기능과 장애 두 가지로 나뉜다고 판단하여 장애인운동선수의 언론 보도행태를 기능초점정도, 장애초점정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두 가지 보도행태에 따라 사람들의 편견 발생과정 즉, 인지적 과정으로써 거리감과 감정적 과정으로써 연민에는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람들이 장애인선수를 다룬 스포츠신문기사의 초점이 기능에 있다고 인지한 사람일수록 장애인선수에 대해 낮은 거리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사의 내용이 장애에 초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장애인선수에 대해 높은 거리감을 보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어 기능에 초점이 맞춰

져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낮은 연민을 장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높은 연민을 보이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의 이런 결과는 언론의 보도행태에 따라 사람들이 장애인선수에 대해 인지하는 거리감과 연민이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장애인선수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신문기사일수록 장애인선수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연민이 장애에 초점을 맞춘 신문기사를 읽고 난 뒤의 거리감과 연민보다 더 낮음을 시사한다. Tuner & Oakes (1989)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나와 유사한 것이 많은 집단일수록 내 집단으로 인식하고 나와 다른 것이 많을수록 외집단으로 범주화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 외집단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범주화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비교대상이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언론의 보도행태는 사람들의 편견발생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잣대 혹은 기준이 되며 특히, 장애인선수를 다룬 언론의 보도행태는 장애인선수에 대한 거리감, 연민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운동선수를 다루는 기자, PD및 많은 방송관계자에게 장애인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순 장애에만 초점을 맞추는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보도행태에서 벗어나 장애인운동선수 역시 운동선수로서의 기능과 운동성장과정, 기량 등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편견발생과정과 편견 정도

본 연구에서는 편견의 기저로써 인지적 과정으로는 거리감을 감정적 과정으로는 연민이라는 변인을 도출하였으며 편견은 Siller (1970)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 측정문항 중 본 연구와 가장 적합한 세 가지 하위 요인을 도출하였다. 1.무조건적 거부(generalized rejection) 2.친교의 거부(rejection of intimacy) 3.기능적 제한성 전가(imputed functional limitation)이며 무조건적 거부와 친교의 거부는 차별적 행동을 기능적 제한성 전가는 고정관념을 측정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1) 거리감과 편견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선수를 다룬 스포츠 기사를 통해 인지된 거리감은 일반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선수에 대한 거리감이 높은 사람은 장애인에 대한 높은 편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견은 무조건적인 거부, 친교거부, 기능적 제한성 전가에도 인과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해 인지된 거리감은 일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동, 고정관념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Oakes et al., (1994)의 연구 중 인지적 편향은 편견을 형성시킨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인지적 편향은 범주화로써 설명될 수 있는데 개인이나 집단을 단순화시키고 특히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범주화함으로써 내집단 편애와 외집단 비하가 일어나 이것이 내집단과 외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특정 행동 및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 연민과 편견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선수를 다룬 스포츠 기사를 통해 느낀 감정으로써의 연민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몇 몇의 선행연구에서는 상대에 대한 연민 즉, 불쌍한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상대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온다는 결과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선수에 대해 높은 연민을 보인 집단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역시 높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Fiske (200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는 장애인에 대한 연민은 지위가 낮은 집단에 속한 그룹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였으며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외집단에 대한 주관적으로는 따뜻하고 좋은 감정이지만 이는 그 집단이 열등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을 때 나타나는 혼합된 감정이라 하며 이런 집단에 대하여 고정관념적 편견이 나타난다고 하며 연민과 고정관념과의 관계를 정의하였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언론보도행태에 따라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와 감정에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장애인 전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언론보도행태와 편견의 발생과정 그리고 편견과의 연관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장애인에 대한 언론보도행태에 대해 규명하였는데 장애인선수보도는 일반인들의 인식관점에서 기능에 초점 둔 기사와 장애에 초점을 둔 기사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편견의 발생과정으로 인지적 처리과정과 감정적 처리과정이라는 2가지 프로세스를 도출해내어 인지적 처리과정으로 거리감을 감정적 처리과정으로 연민의 변인을 도출, 연구에 적용하였다. 편견의 구성요인으로써 차별적 행동과 고정관념으로 나누었으며 그 하위 항목으로 차별적 행동 측정을 위하여 무조건적 거부와 친교의 거부 고정관념의 측정을 위하여 기능적 제한성의 전가의 항목으로 나누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모형을 설계,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사전조사를 거쳐 제작된 신문기사를 포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측정 항목을 수정, 재구성하여 설문지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에 있는 3개 대학교 학생 중 비장애인(스스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며 총 238명의 사람들

이 장애인운동선수 보도의 미디어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거리감, 연민 그리고 편견의 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을 작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과 구조방정식(SEM) 모형검증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능 초점 정도가 큰 프레임은 거리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장애인선수를 다룬 스포츠기사가 기능에 높은 초점을 맞췄다고 인지한 사람들일수록 장애인선수에 대해 낮은 거리감을 보인다.

둘째, 기능 초점 정도가 큰 프레임은 연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장애인선수를 다룬 스포츠기사가 기능에 높은 초점을 맞췄다고 인지한 사람들일수록 장애인선수에 대해 낮은 연민을 보인다.

셋째, 장애 초점 정도가 큰 프레임은 거리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장애인선수를 다룬 스포츠기사가 장애에 높은 초점을 맞췄다고 인지한 사람들일수록 장애인선수에 대해 높은 거리감을 보인다.

넷째, 장애 초점 정도가 큰 프레임은 연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장애인선수를 다룬 스포츠기사가 장애에 높은 초점을 맞췄다고 인지한 사람들일수록 장애인선수에 대해 높은 연민을 보인다.

다섯째, 장애인선수에 대한 거리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정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장애인선수에 대해 거리감을 많이 느낀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높은 편견을 가진다.

여섯째, 장애인선수에 대한 연민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즉, 장애인선수에 대해 연민을 많이 느낀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높은 편견을 가진다.

2. 제언

본 연구는 언론에서 장애인선수를 보도함에 있어 보도의 방향성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선수 보도행태를 규명하여 이것이 장애인선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와 감정에 영향을 미쳐 결국 장애인 전체에 대한 편견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서부터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장애인스포츠의 활성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언론의 보도와 일반인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간 언론보도와 장애인선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연구는 미디어 효과의 차원에서 프로그램 포맷에 중점을 두고 기사를 비교하거나(Sadlick & Penta, 1975) 장애와 관련된 특수 교육의 차원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일반학생들 교육의 보조매체의 관점에서 효과를 조사한 연구(Gottlieb, 1980)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룬 언론보도와 장애인선수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의 관계에 대한 접근 시도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 의의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장애인보도행태를 규명하여 일반인들의 인지와 감정 그리고 편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차별적 행동과 고정관념)을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려는 시각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언론매체의 윤리적이고 올바른 보도행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보도행태와 일반인들의 태도와의 관련성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선수 뿐 만 아니라 여성, 노인 등 소수집단에 속한 운동선수들과 일반인들의 태도와 관련하여 언론과의 메커니즘을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한다면 다양한 연구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문적, 실제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연구를 통하여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편견은 오랫동안 연구되어온 주제로서 다양한 하위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신문기사를 읽은 뒤 설문에 응답, 사람들의 편견을 측정하였는데 세 가지 신문기사로 사람의 태도를 완벽히 측정해 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일정 시간을 두고 태도를 측정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인과의 접촉횟수는 사람들의 태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수와 그 접촉횟수를 측정하였으나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들과 접촉경험에 있어서 행복, 불쾌감등 감정적인 측면과 접촉경로를 세밀히 조사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지인, 접촉 등의 단어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아 답변에 혼란을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접촉횟수와 접촉 경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편견의 발생과정으로 인지적 측면으로는 거리감을 감정적 측면으로는 연민을 도출,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인지와 감정은 일반적으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며 편견을 발생시키는 기저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기저로 Allport (1954)는 무지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가장 핵심적인 변인을 이용하긴 하였지만 이들 요인이외에 다양한 요인의 존재에 대하여 그 제한점을 갖는다.

이상의 한계점들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장애인선수 언론보도와 일반인들의 태도와의 관계를 엄격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즉, 일반인들에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엄격히 통제한 뒤, 장애인선수 신문기사에 꾸준히 노출되어 태도변화를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연구 결과의 일반화 뿐 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따른 장애인선수와 일반인의 태도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더욱 확고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수균, 조홍중 (2003). **장애이해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권정아 (2006). **1988년 이후 조선일보에 보도된 장애인스포츠 관련 기사의 변화.**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사회개인심리학회지, 13(1)**, 1-33

박나영 (2011). **장애인스포츠 타이틀스폰서십이 기억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애신 (2006). **장애관련 영화를 통한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장애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인희 (2011). **지각된 미디어 특성과 미디어 효능감이 공익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 : 트위터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관재, 이재창, 홍영오 (2001).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인 및 윤락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지, 7(1),** 119-136.

이성규 (2003). 장애인 스포츠 활동의 현황과 인식에 기초한 장애인스포츠 지원 체계 개선방안. **사회복지정책, 17,** 133-153.

이종은 (1999).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민규 (2008).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 실태와 확대 방안. **지적장애연구**

한희정 (2007). 소수자 재현과 수용. 방송과 인권 토론회, 114-155

함미애 (1998). **한국신문의 장애에 대한 보도경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대식 (1995). **사회심리학.** 서울: 양영각.

홍양자 (1996). **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 서울: 21세기교육사.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Cambridge, MA:

Addison-wesley.

Ashmore. R, E., & Del Boca, F. K. (1976). *Psychologic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intergroup conflict, Towards the elimination of racism.* N.Y.: Pergamon Press.

Batson, C. D., Chang, J., Orr, R., & Rowland, J. (2002). Empathy, attitudes, and action: Can feeling for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motivate one to help the grou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656-1666.

Batson, C. D., Polycarpou, M. P., Harmon-Jones, E., Imhoff, H. J., Mitchener, E. C., Bednar, L. L., Klein, T. R., & Highberger, L. (1997). Empathy and attitudes: Can feeling for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improve feelings toward the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05-118.

Brewer, M. B., & Brown, R. J. (1998). *Intergroup relation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Brewer, M. B., Dull, V., & Lui, L. (1981). Perceptions of the elderly: Stereotypes as prot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656-670.

Brown, R., & Zagefka, H. (2005). *In-group Affiliations and Prejudice,* In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ssacchusettes, MA: Addison-wesley. pp.54-69.

Brubakers, T. & Powers, E. (1976). The stereotypes of 'Old': A review and alternative approach, *Journal of Gerontology, 31,* 441-447.

Carmines, E. G., & Zeller, R. A. (1979).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 Beverly Hills, London: Sage Publications.

Chong, D., & Druckman, J. N. (2007). Framing Theor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0, 103-126.

Clogston, J. S. (1994). The Disabled, the Media, and the Information Age, Disability coverage in American newspapers, pp. 45-52.

Cooke, A., & Reisner, N. (1991). *The last minority,* Washington Journalism Review, 13(10), 14-18.

Cottrell, C. A., & Neuberg, S. L. (2005). Different emotional reactions to different groups: A sociofunctional threat-based approach to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770-789.

Day, L. A. (2000). *Ethics in Media Communications: Cases and Controversies,*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DePauw, K., & Gavron, S. (1995). *Disability and Sport.* Champaign, IL: Human Kinetics publishing.

Derbaix, Christian. M. Vanhamme Joelle. (2003). Inducing word-of-mouth by eliciting surprise-a pilot investigat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4*(1), 99-116.

De Vreese, C. H. (2001). 'Europe' in the news: A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news coverage of key EU events, *European Union Politics, 2*(3), 283-307.

Dickert, S & Slovic, P. (2009). Attentional mechanisms in the generation of sympathy,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4*(4), 297-306.

Dijker, A. J. M. (2010).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s neighbours: Towards understanding the mundane aspects of social integration,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0*(5), 347-362.

Dovidio, J. F., Brigham, J. C., Jognson, B. T., & Gaertner, S. L. (1996).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nother look.* In C. N. Macrae, C. Stangor, & M. Hewstone(Eds.),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New york, NY: Guilford Press.

Dovidio, P. Glick, & L. A. Rudman. (2005). *On the nature of prejudice, Malden,* MA: Blackwell.

Druckman, J. N. (2001). The implications of framing effects for citizen competence. *Political Behavior, 23,* 225-255.

Druckman, J. N. (2004). Political preference formation: Competition, deliberation, and the (ir)relevance of framing effec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 671-686.

Edson, E. J, & Stern, B. (2003). Sympathy and empathy: emotional responses to advertising dramas, *Journal of consumer response, 29*(4), 566-578.

Elizabeth, L. Paluck. (2009). Reducing intergroup Prejudice and Conflict Using the Media: a Field Experiment in Rwand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3), 574-587.

Finlay, K. A., & Stepham , W. G. (2000).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The effects of empathy on racial attitud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 1720-1737.

Fishbein, H. D. (1996). *Peer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Evolutionary, Cultural and developmental dynamics,* Boulder, CO: Westview.

Fiske, S. T.,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78-902.

Freeman, J. L., Sears, D. O., & Carlsmith, J. M. (1981). *Soci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Gaertner, S. L., & Dovidio, J. F. (2000). *Reducing intergroup bias: The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 Philadelphia, PA: The

Psychology Press.

Gottlieb, J. (1980). Improving attitudes toward retarded children by using group discussion, *Exceptional Children, 47*(2), 106-111.

Haller, B. (1997). *Images of disability in news media: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83rd), Chicago, IL, 19-23.

Hewstone, M. (1990). The "Ultimate attribution error?"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intergroup attribu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 311-335.

Hewstone, M., & Brown, R. (1986). *Contact and conflict in intergroup encounters,* Oxford, UK: Blackwell.

Higgins, P, C. (1992). *Making disability: Exploring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human variation,*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Hu, L.-T.,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s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6*(1), 1-55.

Idson, L. C., & Mischel, W. (2001). The personality of familiar and significant people: the lay perceiver as a social-cognitive theori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585-596

Iyengar, S., & Simon, A. (1993).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A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20*(3), 365-383.

Jackson, L. M. (1992). In what way is the unfinished mind unfinished? *Psychological Inquiry,* 3, 163-165.

Johnson, M. & Elkins, S. eds. (1989). *Reporting on disability, Approaches and issues,* Louisville, KY: Avocado Press.

Jones, M. (2002).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Jussim, L., Nelson, T. E., Manis, M., & Soffin, S. (1995), "Prejudice, stereotypes and labeling effects: Source of bias in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228-246.

Kagan, J., & Snidman, N. (1991). Temperamental factors in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6*, 856-862.

Keller, C., Hallahan, D., Mcshane, E., Crowley, E., & Blandford, B. (1990). Coverag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merican newspaper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4,* 271-282.

Kinder, Donald R., & Lynn M. Sanders. (1996). *Divided by color:* Racial Politics and Democratic Idea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inder, Donald R., & David O. Sears. (1985).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action.* In G. Lindzey and C.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New York: Random House

Kleg, M. (1993). *Hate, Prejudice and Racism.* Newyork,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Leland, J. (1998). From the rough. Newsweek, 48-50.

Lippman, W. (1992). *Public Opinion,* New york, NY: Harcourt Brace.

Loewenstein, G., Small, DA. (2007). The scarecrow and the tin man: the vicissitudes of human sympathy and car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1*(2), 112-126.

Mackie, D. M., Devos, T., & Smith, E. R. (2000). Intergroup emotions: Explaining offensive action tendencies in an intergroup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602-616.

Mendelberg, T. (2002). The deliberative citizen: Theory and evidence. Political decision making, D*eliberation and Participation, 6*, 151-193.

Miller, D. T., Downs, J. S., & Prentice. D. A., (1998). Minimal conditions for the creation of a unit relationship: the social bond between birthmat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475-481

Molly, P., Kristen, V., Thomas. (2007). Emotion and prejudice: Specific Emotions toward out-group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0*(1), 27-39.

Nelson, J. (1996). *The invisible cultural group: Images of disability.* In P Lester(Ed.), Images that injure: Pictorial stereotypes in the media. 119-125. Westport, CT: Praeger.

Nelson, T. E., Zoe M., Oxley. (1997). Toward a Psychology of Framing Effects. *Political Behavior, 19*(3), 221-246.

Nelson, T. D., Clawson, R.A., & Oxley, Z.M. (1997). Media framing of a civil liberties conflict and its effect on tolera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3), 567-583.

Nelson, T. E., & Kinder, D. R. (1996). Issue frames and group-centrism in American public opinion. *Journal of Politics, 58,* 1055-1078.

Nier, J. A., Gaertner, S. L., Dovidio, J. F., Banker, B. S., & Ward, C. M. (2001). Changing interracial evaluations and behavior: The effects of a common group identity.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4,* 299-316.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NY: McGraw-Hill.

Oakes, Penelope J., S Alexander Hasslam, John C. Turner. (1994). *Stereotyping and social reality,* Oxford, UK: Blackwell.

Oliver, M. (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Perloff, R. M. (1993). Third-person effect research 1983-1992: A review and syn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5*(2), 167-184

Price, V., D. Tewksbury, & E. Powers. (1997). Switching trains of thought: The impact of news frames on readers' cognition responses, *Communication Research, 24*(5)

Pfuhl, E. H., & Henry, S. (1993). *The Deviance Process Hawthome,* New York, NY: Walter de Gruyter.

Reese, S. D., Gandy Jr., O. H., & Grant, A. E. (2001).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Mahwah, NJ: Lawrence Erlbaums.

Richins, M. L. (1997). Measuring emotions in the consumption experience, *Journal of consumer response, 24*(2), 127-146.

Rokeach, Milton.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NY: Free Press.

Ruth, J., Brunel, F, & Otnes, C. (2002). Linking thoughts to feelings: investigating cognitive appraisals and consumption emotions in a mixed-emotions context, *Journal of academic marketing science, 30*(1), 44-58.

Sadlick, M., & Penta, F. B. (1975). Changing nurse attitudes toward quadriplegics through use of television. *Rehabilitation Literature. 36*(9). 274-283.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10.

Schroeder, D. A., Penner, L A., Dovidio, J. F., & Piliavin, J. A. (1995).

Psychology of helping and altruism: Problems and puzzles. New York, NY: McGraw-Hill.

Shapiro, J. (1993). No Pity: *People with disabilities forging a new civil rights movement.* New York, NY: Times Books.

Sherif, M. (1936). *The psychology of social norms.* New York, NY: Harper & Brothers.

Sherrill, C., Rainbolt, W. & Ervin, S. (1984). Attitude of blind person toward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 3-11.

Smith, R. H. (2000). Assimilative and contrastive emotional reactions to upward and downward social comparisons, Handbook of social comparison: *Theory and research,* 173-200

Sniderman, P. M., & Theriault, S. M. (2004). *The structure of political argument and the logic of issue framing.* Studies in public opinion: Attitudes, Non-attitudes, Measurement error, and change. 133-165.

Stangor, C., L. A. Sullivan, & T. E. Ford. (1991), Affective and cognitive determinant of prejudice, *Social Cognition, 9*, 59-80.

Stephan, W. G., & Finlay, K. (1999). The role of empathy in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55,* 729-744.

Stone, C. H., Crisp, R. J. (2007). Superordinate and subgroup identification as predictors of intergroup evaluation in common ingroup context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0*(4), 493-513.

Tsiros, M., & Mittal, V. (2000). A model of it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in consum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nsumer response, 26*(4), 401-417.

Turner, J. C.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concept: A social-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ur.* In E. J. Lawler (Ed.),

Advances in group processes: Theory ad research.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UK: Basil Blackwell.

Tversky, Amos., & Kahneman, Daniel. (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 453-458.

Urban, L. M. & Miller, N. (1998). A theoretical analysis of crossed categorization effects: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894-908

Valkenburg, P., H, Semetko & C. De Vreese. (1999). The effects of news frames on readers' thoughts and recall, *Communication Research, 26*(5), 550-569

Vescio, T. K., Sechrist, G. B., & Paolucci, M. P. (2003). Perspective taking and prejudice reduction: The mediational role of empathy arous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455-472.

Weiner, B., Perry, R. P., & Magnusson, J. (1988).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reactions to stigm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738-748.

Wyer, J. R., & Srull, T. K. (1984). *Category Accessibility: Some theoretic and empirical issues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social stimulus imformation.* In Higgins, Herman, & Zanna (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Yoshida, R., Wasilewski, L., & Friedman, D. (1990). Recent news paper coverage about persons with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56,* 418-423.

< 부 록 1 - 장애초점 사전조사 신문기사 I >

● 다음은 지난 런던장애인올림픽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신문 기사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뉴스 오피니언 경제 스포츠 연예 라이프

+크게 | -작게 기사내보내기

입력 : 2012.10.12 00:20

정호원선수가 보치아 경기를 위해 휠체어에 앉아 표적구를 바라보고 있다.

*보치아는 뇌성마비중증장애인과 운동성장애인만 참가할 수 있는 종목

장애, 가난,,, 이젠 극복해 볼래요!

몸을 뒤척이며 옹알거리는 아기에게 우유병을 물렸다. 그런데 아기는 우유병을 번번이 놓쳤다. 손은 심하게 떨고 있었다. 엄마는 아기를 둘러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병명은 후천성 뇌병변(뇌성마비). 매점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일시 중단 됐던 것이다. 엄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아기의 이름은 정호원(26, 속초시장애인체육회). 호원이는 남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충북의 지체 장애 특수학교 숭덕학교에 들어갔다. 경기도 집에서는 멀었지만 학비가 싼 기숙학교였다. 9살 때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 웃음꽃을 피웠다. 그 날 밤 호원이는 아버지의 다급한 소리에 놀라 잠을 깼다. 온 집안이 화염에 휩싸였다. 천장까지 불이 붙었다. 어머니가 호원이를 불길 속에서 감싸안아 화상을 입진 않았지만 화재로 인해 어머니와 형은 큰 화상을 입었고 몇 차례 수술과 피부이식 끝에 6개월 만에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다. 화재와 병원비로 재산은 거덜이 났고, 아버지는 어느 날 자취를 감췄다.

호원이는 "오그라든 손과 비뚤어진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 생각했다. 죽고 싶어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보치아를 접하면서 만 16살 때 국내 최연소 국가대표가 됐다. 권찰현 감독(39)은 호원이는 공을 굴려 정확하게 표적구 옆에 붙이는데 재능이 있다고 했다. 베이징 장애인올림픽개인전에선 동메달을, 단체전에서 1위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운동만 할 수는 없었다. 돈을 벌어야 했다. 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연금이 보장되지 않는 때였다.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문을 두드렸지만 그곳에서도 외면당했고 암담했었다. 하지만 다시 그는 런던으로 간다. 마지막으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다" 고 소감을 밝히며 떠났다. 그의 선전을 기대해본다.

< 부 록 2 - 장애초점 사전조사 신문기사Ⅱ>

● 다음은 지난 런던장애인올림픽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신문 기사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뉴스 오피니언 경제 스포츠 연예 라이프

+크게 | -작게 기사내보내기

입력 : 2012.10.12 00:20

"스물 살 까지만 살래.. 엄마 가슴에 못 받더니.."

트랙에서 연습중인 전민재선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전민재 선수는 어머니를 통해 "육상 코치가 필요하다"고 전해왔다.

"바로 큰 병원에 갔으면 괜찮았을 거에요. 아니, 추석 연휴만 아니었어도 제대로 치료를 받았을 텐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러워요." 전민재(35)의 어머니 한재영씨(61)는 30년 전 그 날을 잊을 수 없다.

민재는 또래에게 무엇 하나 뒤지지 않는 평범한 아이였다. 다섯 살 때 원인 모를 뇌염에 걸리기 전까지는 그랬다.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난 딸은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다. 아버지가 안고 집을 나섰다. 읍내 작은 병원에서는 장염이라고 했다. 사흘 동안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혔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몸이 더 끓었다. 부랴부랴 전주에 있는 큰 병원을 알아봤지만 하필 연휴라 의사가 없었다. 사경을 헤매는 딸을 데리고 전주로 갔지만 원인 모를 뇌염으로 인한 뇌성마비였다. 농사일을 나간 부모를 대신해 여동생을 등에 업고 토닥거렸던 전민재의 손은 며칠 새 뒤틀려있었다. 자장가를 불러 주던 입은 소리만 겨우 나올 뿐이었다. 말을 못하고 손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여자아이는 언니들과 같은 학교에 갈 수 없었다. 그런 아이를 받아줄 학교는 없었다. 특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암재활학교에 진학했다. 거기서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2003년 육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내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태극마크도 달았다. 국내에는 적수가 없었지만 세계의 벽은 높았다. 국내의 여건은 더욱 좋지 않았다. 코치가 없었다. 그러다 국가대표팀 감독을 만나 런던 올림픽 100, 200m에서 은메달을 따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합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런던=Never.com

< 부 록 3 - 장애초점 사전조사 신문기사Ⅲ>

● 다음은 지난 런던장애인올림픽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신문 기사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뉴스 오피니언 경제 스포츠 연예 라이프

+크게 | -작게 기사내보내기

입력 : 2012.10.12 00:20

어머니가 있었기에 나도 런던에... 가족의 힘으로 장애 극복해요

최예진선수와의 준결승전 중인 김한수선수(사진). 아쉽게 결승진출에 실패해 안타까운 눈빛으로 표적구를 바라보고 있다.

남들보다 발달이 조금 늦은 줄 알았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지독한 난산 끝에 3년 만에 낳은 첫 아들이 바로 김한수(20) 중증 장애인 종목 보치아 선수이다. 세상에 나온 아이는 무호흡 증상에 울지도 않았다. 인지반응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지만 아들은 이상했다. 돌이 지나도 걷기는 커녕 목도 가누지 못했다. 엄마는 괜찮다는 병원은 모두 다녔다. 민간요법도 무수히 받았고 꾸준히 언어치료도 했다. 시간이 흘러 아 이의 몸은 커졌지만 크게 나아진 건 없었다.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무렵, 엄마는 그때서야 아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특수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진단서를 받았다. 뇌성마비 1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특수학교에 가서야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한수에게 무언가 열중할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무렵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보치아를 시작했다. 한수와 같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장애인들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보조요원 겸 코치로 가족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다. 김한수 선수 역시 엄마(윤추자 코치)와 함께 대회에 출전한다. 처음에는 아들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다. 눈짓과 몸짓으로 겨우 의사를 교환하며 던지는 공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었고 처음 2년 동안은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탈락해 한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아들 때문에 쏟은 눈물이 몇 바가지는 될 거에요” 라며 어머니는 힘들었던 시간을 회상했다. 2010년 광저우에서 세계랭킹1위인 정호원선수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던 김한수 선수는 이번 올림픽 준결승에서 그는 한국선수 최예진과 맞붙었다. Naversports.com

< 부 록 4 - 기능초점 사전조사 신문기사 I >

● 다음은 지난 런던장애인올림픽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신문 기사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뉴스 오피니언 경제 스포츠 연예 라이프

+크게 | -작게 기사내보내기

입력 : 2012.10.12 00:20

여자 양궁 '숙자매'가 금메달을 딴 뒤 환호하고 있다. '숙자매'는 적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호흡과 기술력으로 올림픽 내내 점수를 리드했다.

"숙자매" 금빛 과녁 명중!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양궁 대표팀의 "숙자매"가 여자 단체전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의 이화숙, 고희숙, 김란숙 조는 2004년 아테네장애인 올림픽부터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 단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했으며 지난 2008년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이번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 부터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다.

결승에 앞서 이란과의 4강전에서는 경기 후반 3발을 남겨 놓고 164 - 164 동점까지 따라 잡히기도 했지만 노련미와 선수 간 찰떡궁합을 선보인 한국은 10, 9, 9점을 각각 쏴, 경기 결과 92 - 186으로 이란을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영국런던의 왕립 포병대 기지 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중국은 지난 베이징에서 패배를 안겨 준 팀으로 4년만에 복수전을 기대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이내 긴장감을 풀고 과녁 중앙에 화살을 꽂았다. 첫 엔드 결과 53-44 한국 선수들의 일방적인 페이스였다. 중반까지 이어진 페이스는 완전히 한국팀의 흐름이었다. 결국 199대 193으로 꺽었다. 각 팀이 총 24발의 화살을 쏴 점수를 합산하는 경기에서 한국은 12발을 쐈을 때 이미 102-92로 중국을 크게 앞섰다.

첫 번째로 활을 드는 이화숙은 과감성 있는 슈팅으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고, 두 번째 활을 드는 고희숙은 선수간의 의견조율과 게임의 페이스 조절을 맡아서 한다. 마지막 슈팅 주자인 김란숙은 안정적인 마무리를 맡아 경기에서 확실한 승리를 책임진다. 소아마비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김란숙 씨는 체육관에서 양궁하는 것을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양궁을 시작했다. 이제는 지독한 연습벌레가 된 선수들은 "오랜 기간 연습을 통하여 얻어낸 서로간의 팀워크야 말로 금메달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고 하며 활짝 웃었다.

런던 = Naversports.com

< 부 록 5 - 기능초점 사전조사 신문기사Ⅱ>

● 다음은 지난 런던장애인올림픽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신문 기사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뉴스 오피니언 경제 스포츠 연예 라이프

+크게 | -작게 기사내보내기

입력 : 2012.10.12 00:20

사격혼성 50m에서 금메달을 딴 박세균선수가 시상식에서 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그는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3개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를 넘다! 최다관왕 박세균!

박세균(41, 청주시청)은 순간 멍했다. 9번째 발사까지 박세균은 터키의 코르한 야마츠에 0.5점을 앞섰지만 마지막 10번째 발사에서 야마츠가 10.3점을 쏘며 9.8에 머문 박세균과 기어이 동점을 만들었다. 박세균은 “10번째 발사를 마친 뒤 모니터 점수판을 보고 잠시 충격에 빠졌다” 고 털어놨다. 마지막 한 발로 승부를 결정짓는 슛 오프, 야마츠의 사대에서 먼저 총소리가 울렸다. 9.9점이었다. 박세균은 야마츠가 총을 쏜 뒤에도 한참을 더 과녁을 노려봤다. 이윽고 “탕” 하는 총성이 들렸다. 만점(10.9점)에 가까운 10.8점이었다. 숨죽이던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고, 박세균도 그제야 환한 웃음을 지었다.

박세균은 7일 혼성 50m권총경기에서 합계 642.4점(본선 550점, 결선 92.4점)으로 금메달을 땄다. 본인이 2008베이징 대회 때 우승하며 세웠던 세계기록 644.9점(본선 552점)엔 못 미쳤지만 2위 발레리포노마렌코(633.2점, 러시아)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2연패에 성공했다.

이번 런던장애인올림픽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10m공기권총) 주인공인 박세균은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거두며 한국 남자 사격 선수로는 통산 최다관왕(금3개)의 영예를 안았다.

경남 남해 출신인 박세균은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재활운동으로 학창시절 즐기던 농구를 택했고,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에서는 휠체어농구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동료들도 4년을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잘 나올 것” 이라며 “한국이 금메달을 많이 땄으면 좋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런던 = Naversports.com

< 부 록 6 - 기능초점 사전조사 신문기사Ⅲ>

● 다음은 지난 런던장애인올림픽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신문 기사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뉴스 오피니언 경제 스포츠 연예 라이프

+크게 | -작게 기사내보내기

입력 : 2012.10.12 00:20

경기 시작 45초만에 허리 후리기 한판으로 금메달을 딴 최광근 선수(위)가 기쁨에 환호하고 있다.

유도선수 최광근! 세계정상 우뚝!

178cm, 몸무게 99kg의 당당한 체격을 지닌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렀다. "메달을 딸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오늘 아침 유난히 몸이 가벼웠어요. 기분이 좋았죠" 라고 애써 감정을 누른 채 소감을 얘기하던 그는 큰 소리로 인터뷰를 마쳤다. "엄마, 빨리 나아. 나 금메달 땄어!"

이 체급 세계랭킹 1위에 올라있는 최광근은 대회 전부터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며 큰 관심을 받아왔다. 2010광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과 2년 연속 세계선수권을 제패하는 등 당해낼 선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최광근은 이번 런던에서도 무난히 그기량을 펼쳐 줄 것으로 기대됐다.

최광근(25)은 차근차근 경기를 풀어가면서 결승 무대까지 손쉽게 올라왔다. 결승에서 만난 미국의 마일스포터는 약간의 긴장감을 주긴 했지만 역시 최광근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최광근은 경기 시작 45초 만에 100kg 급에서 허리 후리기 한판으로 경기를 끝내버리며 올림픽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다.

최광근의 이번 메달은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에서 안유성(현 대표팀 코치)이 동메달을 따낸 이후 12년 만에 따낸 메달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그는 고교시절 전국체전을 앞두고 연습경기를 하다 시력을 잃었다. 다행히 완전히 시력을 잃은 전맹은 아니지만 사물의 거리를 완전히 분간하기에는 힘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유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감격스러운 순간을 누릴 수 있었다. 한국은 런던올림픽 3일째 종합 18위를 기록하고있다.

런던 = Naversports.com

< 부 록 7 - 사전조사 설문 문항 >

● 다음은 앞의 기사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u>각각의 문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u>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와 일치하는 번호에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앞의 3가지 신문기사의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맞추고있지않다	조금맞추고있다	보통이다	강하게맞추고있다	매우강하게맞추고있다
1. 기사의 **사진**은 선수의 **장애**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2. 기사의 **제목**은 선수의 **장애**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3. 기사의 **내용**은 선수의 **장애**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4. 기사의 **사진**은 선수의 **기량**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5. 기사의 **제목**은 선수의 **기량**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6. 기사의 **내용**은 선수의 **기량**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 부 록 8 - 장애초점 본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스포츠경영 전공에서 석사논문을 위한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언론보도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느낌과 생각에 따라 각 문항에 ✓표로 답하시면 됩니다.

답변해 주신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질문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정 선 미
연락처: 010-9779-0209
jsm850209@naver.com

다음은 통계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A.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B.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C. 귀하의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D. 귀하가 아는 사람(지인)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E. 귀하는 장애인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1년에 1~2회 ③ 6개월에 1~2회 ④ 1달에 1~2회 ⑤ 1주일에 1~2회 ⑥ 거의 매일

● 다음은 지난 런던장애인올림픽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신문 기사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뉴스 오피니언 경제 스포츠 연예 라이프

+크게 | -작게 기사내보내기

입력 : 2012.10.12 00:20

정호원선수가 보치아 경기를 위해 휠체어에 앉아 표적구를 바라보고 있다.

*보치아는 뇌성마비중증장애인과 운동성장애인만 참가할 수 있는 종목

장애, 가난,,, 이젠 극복해 볼래요!

몸을 뒤척이며 옹알거리는 아기에게 우유병을 물렸다. 그런데 아기는 우유병을 번번이 놓쳤다. 손은 심하게 떨고 있었다. 엄마는 아기를 둘러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병명은 후천성 뇌병변(뇌성마비). 매점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일시 중단 됐던 것이다. 엄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아기의 이름은 정호원(26, 속초시장애인체육회). 호원이는 남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충북의 지체 장애 특수학교 숭덕학교에 들어갔다. 경기도 집에서는 멀었지만 학비가 싼 기숙학교였다. 9살 때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 웃음꽃을 피웠다. 그 날 밤 호원이는 아버지의 다급한 소리에 놀라 잠을 깼다. 온 집안이 화염에 휩싸였다. 천장까지 불이 붙었다. 어머니가 호원이를 불길 속에서 감싸안아 화상을 입진 않았지만 화재로 인해 어머니와 형은 큰 화상을 입었고 몇 차례 수술과 피부이식 끝에 6개월 만에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다. 화재와 병원비로 재산은 거덜이 났고, 아버지는 어느 날 자취를 감췄다.

호원이는 "오그라든 손과 비뚤어진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 생각했다. 죽고 싶어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보치아를 접하면서 만 16살 때 국내 최연소 국가대표가 됐다. 권찰현 감독(39)은 호원이는 공을 굴려 정확하게 표적구 옆에 붙이는데 재능이 있다고 했다. 베이징장애인올림픽개인전에선 동메달을, 단체전에서 1위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운동만 할 수는 없었다. 돈을 벌어야 했다. 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연금이 보장되지 않는 때였다.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문을 두드렸지만 그곳에서도 외면당했고 암담했었다. 하지만 다시 그는 런던으로 간다. 마지막으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다" 고 소감을 밝히며 떠났다. 그의 선전을 기대해본다.

● 다음은 앞의 기사에 대한 귀하의 이해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앞의 기사를 다시 보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 다음 문항을 읽고 앞의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정호원 선수는 선천적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 (참 / 거짓)

1-2. 정호원 선수는 장애인 직업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참 / 거짓)

1-3. 정호원 선수는 베이징올림픽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참 / 거짓)

● 다음은 지난 런던장애인올림픽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신문 기사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뉴스 오피니언 경제 스포츠 연예 라이프

+크게 | -작게 기사내보내기

입력 : 2012.10.12 00:20

"스물 살 까지만 살래.. 엄마 가슴에 못 받더니.."

트랙에서 연습중인 전민재선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전민재 선수는 어머니를 통해 "육상 코치가 필요하다"고 전해왔다.

"바로 큰 병원에 갔으면 괜찮았을 거에요. 아니, 추석 연휴만 아니었어도 제대로 치료를 받았을 텐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러워요." 전민재(35)의 어머니 한재영씨(61)는 30년 전 그 날을 잊을 수 없다.

민재는 또래에게 무엇 하나 뒤지지 않는 평범한 아이였다. 다섯 살 때 원인 모를 뇌염에 걸리기 전까지는 그랬다.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난 딸은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다. 아버지가 안고 집을 나섰다. 읍내 작은 병원에서는 장염이라고 했다. 사흘 동안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혔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몸이 더 끓었다. 부랴부랴 전주에 있는 큰 병원을 알아봤지만 하필 연휴라 의사가 없었다. 사경을 헤매는 딸을 데리고 전주로 갔지만 원인 모를 뇌염으로 인한 뇌성마비였다. 농사일을 나간 부모를 대신해 여동생을 등에 업고 토닥거렸던 전민재의 손은 며칠 새 뒤틀려있었다. 자장가를 불러 주던 입은 소리만 겨우 나올 뿐이었다. 말을 못하고 손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여자아이는 언니들과 같은 학교에 갈 수 없었다. 그런 아이를 받아줄 학교는 없었다. 특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암재활학교에 진학했다. 거기서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2003년 육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내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태극마크도 달았다. 국내에는 적수가 없었지만 세계의 벽은 높았다. 국내의 여건은 더욱 좋지 않았다. 코치가 없었다. 그러다 국가대표팀 감독을 만나 런던 올림픽 100, 200m에서 은메달을 따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합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런던

● 다음은 앞의 기사에 대한 귀하의 이해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앞의 기사를 다시 보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 다음 문항을 읽고 앞의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민재 선수는 뇌염으로 인한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 (참 / 거짓)

1-2. 전민재 선수는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참 / 거짓)

1-3. 전민재 선수는 런던 올림픽에서 100m,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참 / 거짓)

● 다음은 지난 런던장애인올림픽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신문 기사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뉴스 오피니언 경제 스포츠 연예 라이프

+크게 | -작게 기사내보내기

입력 : 2012.10.12 00:20

최예진선수와의 준결승전 중인 김한수선수(사진). 아쉽게 결승진출에 실패해 안타까운 눈빛으로 표적구를 바라보고 있다.

어머니가 있었기에 나도 런던에... 가족의 힘으로 장애 극복해요

남들보다 발달이 조금 늦은 줄 알았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지독한 난산 끝에 3년 만에 낳은 첫 아들이 바로 김한수(20) 중증 장애인 종목 보치아 선수이다. 세상에 나온 아이는 무호흡 증상에 울지도 않았다. 인지반응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지만 아들은 이상했다. 돌이 지나도 걷기는 커녕 목도 가누지 못했다. 엄마는 괜찮다는 병원은 모두 다녔다. 민간요법도 무수히 받았고 꾸준히 언어치료도 했다. 시간이 흘러 아 이의 몸은 커졌지만 크게 나아진 건 없었다.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무렵, 엄마는 그때서야 아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특수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진단서를 받았다. 뇌성마비 1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특수학교에 가서야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한수에게 무언가 열중할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무렵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보치아를 시작했다. 한수와 같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장애인들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보조요원 겸 코치로 가족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다. 김한수 선수 역시 엄마(윤추자 코치)와 함께 대회에 출전한다.

처음에는 아들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다. 눈짓과 몸짓으로 겨우 의사를 교환하며 던지는 공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었고 처음 2년 동안은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탈락해 한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아들 때문에 쏟은 눈물이 몇 바가지는 될 거에요” 라며 어머니는 힘들었던 시간을 회상했다.

2010광저우장애인아시아게임에서 세계랭킹1위인 정호원선수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던 김한수 선수는 이번 올림픽 준결승에서 그는 한국선수 최예진과 맞붙었다. Naversports.com

● 다음은 앞의 기사에 대한 귀하의 이해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앞의 기사를 다시 보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 다음 문항을 읽고 앞의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치아는 중증장애인이 참가하는 종목이다. (참 / 거짓)

1-2. 김한수 선수의 어머니는 코치의 자격으로 대회에 함께 출전했다. (참 / 거짓)

1-3. 런던올림픽에서 김한수 선수는 준결승에서 만난 최예진 선수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참 / 거짓)

● 다음은 앞의 기사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u>각각의 문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u>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와 일치하는 번호에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앞의 3가지 신문기사의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맞추고있지않다	조금맞추고있다	보통이다	강하게맞추고있다	매우강하게맞추고있다
1. 기사의 **사진**은 선수의 **장애**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2. 기사의 **제목**은 선수의 **장애**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3. 기사의 **내용**은 선수의 **장애**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4. 기사의 **사진**은 선수의 **기량**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5. 기사의 **제목**은 선수의 **기량**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6. 기사의 **내용**은 선수의 **기량**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앞의 기사를 읽은 후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귀하의 인지와 감정변화를 묻는 질문입니다. **<u>각각의 문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u>**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와 일치하는 번호에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문항은 앞의 기사의 주인공인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귀하의 인지 변화를 묻는 질문입니다.

앞의 3가지 기사를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_____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기사 속 선수와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된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①--②--③--④--⑤				
2. 기사 속 선수가 내가 아는 주변 사람 중 한 명으로 느껴져 친숙한 느낌이다.	①--②--③--④--⑤				
3. 기사 속 선수가 내가 속한 동호회에 들어온다면 꺼리지 않을 것이다.	①--②--③--④--⑤				
4. 기사 속 선수와 내가 개인적으로 친구가 된다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①--②--③--④--⑤				
5. 기사 속 선수가 나의 가족의 배우자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①--②--③--④--⑤				

2. 다음 문항은 앞의 기사의 주인공인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귀하의 감정 변화를 묻는 질문입니다.

앞의 3가지 기사를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_____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기사 속 선수가 이용당하는 것을 보면, 보호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①--②--③--④--⑤				
2. 기사 속 선수들이 받는 불공평한 대우에 대하여 불쌍한 느낌이 들었다.	①--②--③--④--⑤				
3. 기사 속 선수들은 나보다 운이 없다고 생각이 들며 걱정하는 느낌이 들었다.	①--②--③--④--⑤				
4. 기사 속 선수들이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하여 미안한 느낌이 들었다.	①--②--③--④--⑤				

● 다음 문항은 장애인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u>각각의 문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u>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와 일치하는 번호에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문항은 장애인에 대한 귀하의 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장애인들은 그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장애인들은 그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장애인들은 그들끼리 일하는 것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만약 장애인이라면 타인과 접촉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장애인들은 정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아이가 장애아와 논다면 부담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장애인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이성으로서 사랑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만약 나의 가족이나 친구 중 장애인과 교제한다면 반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인과 결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장애인들과 일하면 손해를 보는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장애인들은 작업속도가 느려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장애인들은 의존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장애인들은 업무 중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켜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4. 장애인들은 일을 원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장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문항은 앞의 기사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인 느낌과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와 일치하는 번호에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앞의 기사3개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1-1. 싫어한다	①----②----③----④----⑤	좋아한다
1-2. 호감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호감이 간다
1-3. 부정적이다	①----②----③----④----⑤	긍정적이다

2. 귀하는 앞의 기사의 내용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 이해하기 어렵다	①----②----③----④----⑤	이해하기 쉽다
2-2. 정보의 양이 적다	①----②----③----④----⑤	정보의 양이 많다
2-3.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신뢰감이 간다
2-4. 과장이 심하다	①----②----③----④----⑤	과장되지 않았다
2-5. 설득력이 없다	①----②----③----④----⑤	설득력이 있다
2-6. 근거가 없다	①----②----③----④----⑤	근거가 확실하다

3. 귀하는 이 설문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_____

- 이상으로 모든 설문이 끝났습니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 록 9 - 기능초점 본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스포츠경영 전공에서 석사논문을 위한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언론보도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느낌과 생각에 따라 각 문항에 ✓표로 답하시면 됩니다.

답변해 주신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질문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정 선 미
연락처: 010-9779-0209
jsm850209@naver.com

다음은 통계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A.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B.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C. 귀하의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D. 귀하가 아는 사람(지인)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E. 귀하는 장애인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1년에 1~2회 ③ 6개월에 1~2회 ④ 1달에 1~2회 ⑤ 1주일에 1~2회 ⑥ 거의 매일

● 다음은 지난 런던장애인올림픽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신문 기사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뉴스 오피니언 경제 스포츠 연예 라이프

+크게 | -작게 기사내보내기

입력 : 2012.10.12 00:20

여자 양궁 '숙자매'가 금메달을 딴 뒤 환호하고 있다. '숙자매'는 적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호흡과 기술력으로 올림픽 내내 점수를 리드했다.

"숙자매" 금빛 과녁 명중!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양궁 대표팀의 "숙자매"가 여자 단체전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의 이화숙, 고희숙, 김란숙 조는 2004년 아테네장애인 올림픽부터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 단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했으며 지난 2008년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이번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 부터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다.

결승에 앞서 이란과의 4강전에서는 경기 후반 3발을 남겨 놓고 164 - 164 동점까지 따라잡히기도 했지만 노련미와 선수 간 찰떡궁합을 선보인 한국은 10, 9, 9점을 각각 쏴, 경기 결과 92 - 186 으로 이란을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영국런던의 왕립 포병대 기지 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중국은 지난 베이징에서 패배를 안겨 준 팀으로 4년만에 복수전을 기대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이내 긴장감을 풀고 과녁 중앙에 화살을 꽂았다. 첫 엔드 결과 53-44 한국 선수들의 일방적인 페이스였다. 중반까지 이어진 페이스는 완전히 한국팀의 흐름이었다. 결국 199대 193으로 꺽었다. 각 팀이 총 24발의 화살을 쏴 점수를 합산하는 경기에서 한국은 12발을 쐈을 때 이미 102-92로 중국을 크게 앞섰다.

첫 번째로 활을 드는 이화숙은 과감성 있는 슈팅으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고, 두 번째 활을 드는 고희숙은 선수간의 의견조율과 게임의 페이스 조절을 맡아서 한다. 마지막 슈팅 주자인 김란숙은 안정적인 마무리를 맡아 경기에서 확실한 승리를 책임진다. 소아마비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김란숙 씨는 체육관에서 양궁하는 것을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양궁을 시작했다. 이제는 지독한 연습벌레가 된 선수들은 "오랜 기간 연습을 통하여 얻어낸 서로간의 팀워크야 말로 금메달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고 하며 활짝 웃었다.

런던 = Naversports.com

● 다음은 앞의 기사에 대한 귀하의 이해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앞의 기사를 다시 보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 다음 문항을 읽고 앞의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런던올림픽은 '숙자매'가 함께 출전하는 첫 대회였다. (참 / 거짓)

1-2. 이화숙 선수의 특기는 과감한 슈팅이다. (참 / 거짓)

1-3. 김란숙 선수는 게임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두 번째 슈터로 어렸을 때부터 양궁을 했다. (참 / 거짓)

● 다음은 지난 런던장애인올림픽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신문 기사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뉴스 오피니언 경제 스포츠 연예 라이프

+크게 | -작게 기사내보내기

입력 : 2012.10.12 00:20

사격혼성 50m에서 금메달을 딴 박세균선수가 시상식에서 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그는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3개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를 넘다! 최다관왕 박세균!

박세균(41, 청주시청)은 순간 멍했다. 9번째 발사까지 박세균은 터키의 코르한 야마츠에 0.5점을 앞섰지만 마지막 10번째 발사에서 야마츠가 10.3점을 쏘며 9.8에 머문 박세균과 기어이 동점을 만들었다. 박세균은 “10번째 발사를 마친 뒤 모니터 점수판을 보고 잠시 충격에 빠졌다” 고 털어놨다. 마지막 한 발로 승부를 결정짓는 슛 오프, 야마츠의 사대에서 먼저 총소리가 울렸다. 9.9점이었다. 박세균은 야마츠가 총을 쏜 뒤에도 한참을 더 과녁을 노려봤다. 이윽고 “탕” 하는 총성이 들렸다. 만점(10.9점)에 가까운 10.8점이었다. 숨죽이던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고, 박세균도 그제야 환한 웃음을 지었다.

박세균은 7일 혼성 50m권총경기에서 합계 642.4점(본선 550점, 결선 92.4점)으로 금메달을 땄다. 본인이 2008베이징 대회 때 우승하며 세웠던 세계기록 644.9점(본선 552점)엔 못 미쳤지만 2위 발레리포노마렌코(633.2점, 러시아)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2연패에 성공했다.

이번 런던장애인올림픽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10m공기권총) 주인공인 박세균은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거두며 한국 남자 사격 선수로는 통산 최다관왕(금3개)의 영예를 안았다.

경남 남해 출신인 박세균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재활운동으로 학창시절 즐기던 농구를 택했고,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에서는 휠체어농구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동료들도 4년을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잘 나올 것” 이라며 “한국이 금메달을 많이 땄으면 좋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런던 = Naversports.com

● 다음은 앞의 기사에 대한 귀하의 이해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앞의 기사를 다시 보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 다음 문항을 읽고 앞의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박세균 선수는 슛오프(한발로 우승을 결정짓는 슛) 끝에 야마츠 선수를 이겼다. (참 / 거짓)

1-2. 박세균 선수는 런던올림픽의 한국대표단 첫 번째, 두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다. (참 / 거짓)

1-3. 박세균 선수는 원래 휠체어 농구 국가대표였다. (참 / 거짓)

● 다음은 지난 런던장애인올림픽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신문 기사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뉴스 오피니언 경제 스포츠 연예 라이프

+크게 | -작게 기사내보내기

입력 : 2012.10.12 00:20

경기 시작 45초만에 허리 후리기 한판으로 금메달을 딴 최광근 선수(위)가 기쁨에 환호하고 있다.

유도선수 최광근! 세계정상 우뚝!

178cm, 몸무게 99kg의 당당한 체격을 지닌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렀다. “메달을 딸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오늘 아침 유난히 몸이 가벼웠어요. 기분이 좋았죠” 라고 애써 감정을 누른 채 소감을 얘기하던 그는 큰 소리로 인터뷰를 마쳤다. “엄마, 빨리 나아. 나 금메달 땄어!”

이 체급 세계랭킹 1위에 올라있는 최광근은 대회 전부터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며 큰 관심을 받아왔다. 2010광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과 2년 연속 세계선수권을 제패하는 등 당해낼 선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최광근은 이번 런던에서도 무난히 그기량을 펼쳐 줄 것으로 기대됐다.

최광근(25)은 차근차근 경기를 풀어가면서 결승 무대까지 손쉽게 올라왔다. 결승에서 만난 미국의 마일스포터는 약간의 긴장감을 주긴 했지만 역시 최광근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최광근은 경기 시작 45초 만에 100kg 급에서 허리 후리기 한판으로 경기를 끝내버리며 올림픽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다.

최광근의 이번 메달은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에서 안유성(현 대표팀 코치)이 동메달을 따낸 이후 12년 만에 따낸 메달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그는 고교시절 전국체전을 앞두고 연습경기를 하다 시력을 잃었다. 다행히 완전히 시력을 잃은 전맹은 아니지만 사물의 거리를 완전히 분간하기에는 힘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유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감격스러운 순간을 누릴 수 있었다. 한국은 런던올림픽 3일째 종합 18위를 기록하고있다.

런던 = Naversports.com

● 다음은 앞의 기사에 대한 귀하의 이해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앞의 기사를 다시 보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 다음 문항을 읽고 앞의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런던올림픽에서 최광근 선수는 허리 후리기 한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참 / 거짓)

1-2. 최광근 선수는 현재 세계랭킹1위이다. (참 / 거짓)

1-3. 최광근 선수는 완전히 시력을 잃은 전맹이다. (참 / 거짓)

● 다음은 앞의 기사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u>각각의 문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u>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와 일치하는 번호에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앞의 3가지 신문기사의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맞추고있지않다	조금맞추고있다	보통이다	강하게맞추고있다	매우강하게맞추고있다
1. 기사의 **사진**은 선수의 **장애**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2. 기사의 **제목**은 선수의 **장애**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3. 기사의 **내용**은 선수의 **장애**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4. 기사의 **사진**은 선수의 **기량**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5. 기사의 **제목**은 선수의 **기량**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6. 기사의 **내용**은 선수의 **기량**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앞의 기사를 읽은 후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귀하의 인지와 감정변화를 묻는 질문입니다. **<u>각각의 문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u>**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와 일치하는 번호에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문항은 앞의 기사의 주인공인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귀하의 인지 변화를 묻는 질문입니다.

앞의 3가지 기사를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_____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기사 속 선수와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된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①--②--③--④--⑤				
2. 기사 속 선수가 내가 아는 주변 사람 중 한 명으로 느껴져 친숙한 느낌이다.	①--②--③--④--⑤				
3. 기사 속 선수가 내가 속한 동호회에 들어온다면 꺼리지 않을 것이다.	①--②--③--④--⑤				
4. 기사 속 선수와 내가 개인적으로 친구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①--②--③--④--⑤				
5. 기사 속 선수가 나의 가족의 배우자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①--②--③--④--⑤				

2. 다음 문항은 앞의 기사의 주인공인 장애인운동선수에 대한 귀하의 감정 변화를 묻는 질문입니다.

앞의 3가지 기사를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_____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기사 속 선수가 이용당하는 것을 보면, 보호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①--②--③--④--⑤				
2. 기사 속 선수들이 받는 불공평한 대우에 대하여 불쌍한 느낌이 들었다.	①--②--③--④--⑤				
3. 기사 속 선수들은 나보다 운이 없다고 생각이 들며 걱정하는 느낌이 들었다.	①--②--③--④--⑤				
4. 기사 속 선수들이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하여 미안한 느낌이 들었다.	①--②--③--④--⑤				

● 다음 문항은 장애인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u>각각의 문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u>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와 일치하는 번호에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문항은 장애인에 대한 귀하의 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장애인들은 그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장애인들은 그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장애인들은 그들끼리 일하는 것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만약 장애인이라면 타인과 접촉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장애인들은 정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아이가 장애아와 논다면 부담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장애인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이성으로서 사랑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만약 나의 가족이나 친구 중 장애인과 교제한다면 반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인과 결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장애인들과 일하면 손해를 보는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장애인들은 작업속도가 느려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장애인들은 의존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장애인들은 업무 중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켜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4. 장애인들은 일을 원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장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문항은 앞의 기사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인 느낌과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와 일치하는 번호에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앞의 기사3개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1-1. 싫어한다	①----②----③----④----⑤	좋아한다
1-2. 호감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호감이 간다
1-3. 부정적이다	①----②----③----④----⑤	긍정적이다

2. 귀하는 앞의 기사의 내용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 이해하기 어렵다	①----②----③----④----⑤	이해하기 쉽다
2-2. 정보의 양이 적다	①----②----③----④----⑤	정보의 양이 많다
2-3.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신뢰감이 간다
2-4. 과장이 심하다	①----②----③----④----⑤	과장되지 않았다
2-5. 설득력이 없다	①----②----③----④----⑤	설득력이 있다
2-6. 근거가 없다	①----②----③----④----⑤	근거가 확실하다

3. 귀하는 이 설문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_____

- 이상으로 모든 설문이 끝났습니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The Influence of Media Framing about disabled athletes on Prejudice of disabled people

Jung, Sunmi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influence is getting different from type of sports article(Media framing) on perception, emotion about disabled athletes and how it relates with prejudice about disabled person. Current study is to help understand experiential factors of prejudice, and to identify basic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sport article(Media framing) and perception, emotion about disable athletes and prejudice about disabled perso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media framing was divided into two which are the degree of performance focusing and the degree of disable focusing. and social distance, empathy were emulated to measuring perception and emotional process.

Two different survey were made. one survey was with performance

focusing article of disabled athletes and another survey was with article which focused more on obstacle of disabled athletes than their performanc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as utilized to collect data from 238 samples of Students in 3 other universiti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utilizing SPSS 18.0, and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CFA) with Amos 18.0. After CFA was conduct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analysis were applied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es.

The results proved main hypotheses of this study. First, people who perceived performance aspect from sports article felt less social distance and less empathy on disabled athletes. meanwhile another people who perceived disable aspect felt more social distance and empathy. Second, this social distance and empathy came from disable athletes positively affect the prejudice on disable people.

In conclusion, the type of media framing of sports article have significant effect on perception and emotion about disabled athletes. and it correlates with prejudice on disable peopl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 well as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provided.

Key Words: Media framing, Framing, Disabled athletes, Prejudice, Social categorization theory, Empathy.
Student Number: 2010-21568